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Kunrocha

5 호 5 월 15 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9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5 호 (162)　　기 관 잡 지

1959년 5월 15일

내 용

———○———

권두언

당적 사상 체계의 더욱 튼튼한 확립을 위하여

현 시기 당원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할 데 대한 문제는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당은 이 문제를 현 시기 당 내 사상 교양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당 단체들이 이에 심중한 주의를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당의 요구는 전체 당원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적 당적 립장, 당적 사상 관점 및 방법, 작풍으로 튼튼히 무장된 공산주의의 불굴의 투사로, 그리고 어떠한 환경 조건하에서도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없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를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지지 옹호하며 그의 의도대로 사고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그러한 자각적이며 충직한 붉은 전사로 만들려는 데 있다.

우리의 당적 사상 체계——이것은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이다. 즉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과 우리 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서로 결합시킨,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우리 당의 사상 체계인바 따라서 그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구현된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이다.

이 사상 체계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미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형성되였다. 맑스—레닌주의와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곤난 극복의 투쟁 정신과 자기 희생성,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창조적 태도, 원칙적인 단결과 동지 호상 간의 깊은 우애의 정신,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 등 이 모든 고결한 사상 체계는 15 성상에 걸친 항일 무장 투쟁에서 무수한 기적적 업적들을 쌓게 하였고 승리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 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쌓아 올린 백절 불굴의 이 사상 체계는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였으며 그것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를 보장한 사상적 기초로 되였는바 우리 당의 투쟁 력사, 우리 당 건설, 우리 당 정책은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

당적 사상 체계를 튼튼히 확립할 데 대한 문제는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강조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 대렬의 사상 의지의 통일 및 행동의 유일성을 강화하며 당면한 혁명 과업들을 적시에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특히 대중적 정당으로서의 우리 당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당 내에 맑스—레닌주의자—공산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비프로레타리아 사상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 사정과 더우기 해방 전부터 우리 나라 로

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준 종파 분자들과 기타 형형색색의 이색 분자, 우연 분자들이 잠입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그리고 미제와 리 승만 도당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들을 타산하여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에 각별한 주의를 돌렸으며 일련의 조직적 대책들과 아울러 강력한 당 내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의 당적 사상 체계는 튼튼해졌으며 당은 반당 반혁명 분자들과 온갖 이색 분자들의 준동을 미연에 적발 분쇄하고 그들의 죄악적인 활동을 청산하였으며 오늘과 같은 강철의 대오로 당을 꾸려 놓았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과 조건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 나라의 현실, 새로운 중요한 발전 단계에 들어 선 우리 혁명의 급격한 전진은 근로자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의 강화와 함께 특히 당 내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할 것을 가장 긴절하게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시기에 진행된 여러 회의들에서 김 일성 동지가 강조한 바와 같이 목전 우리 혁명의 급격한 전진 속도를 더욱 더 촉진하며 앞으로 도래하고야 말 우리 혁명의 승리를 준비있게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령도자인 우리 당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그의 전투력과 지도적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기 위하여 긴절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정세는 우리 당이 령도하는 혁명 력량에 더욱 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특히 최근 2—3년 간의 정세의 변화는 더욱 급격하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 발전과 사회주의의 정치 경제적 력량의 급격한 장성 강화는 정세를 우리에게 더욱 더 유리하게 급변시키고 있다.

적들은 지금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력량의 급격한 장성에 떨고 있다. 그들은 멸망에 직면한 자기들의 심각한 위기를 만회하여 보려고 전쟁 소동에 광분하는 한편 간첩, 파괴 분자들, 각종 부르죠아 사상을 우리 대렬 내에 침습시켜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 우리 당 대렬의 통일 단결, 사회주의적 전취물들을 파괴하려 하며 우리 혁명의 근거지가 철옹성같이 꾸려지는 것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당은 적들의 책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는 한편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더욱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급변시키며 닥쳐 올 위대한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악전 고투를 전개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템포를 계속 촉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의 물질 생산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 사업에 전력하고 있으며 제 1차 5개년 계획을 금년 내로 완수함으로써 웅대한 강령적 과업을 훨씬 앞당겨 완수하려 한다.

당은 또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물질적 전제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적 전제를 조성하며 첨예한 계급 투쟁의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사상적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의식 령역에서 일체 낡은 사상 잔재들과 인습들을 결정적으로 타파하는 사회주의적 사상 혁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공화국 북반부를 홍일색으로 전변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은 사회주의적 기초 우에서의 전체 인민들의 통일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완전히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전변시키며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사회주의적 보루로,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 승리를 달성하는 철옹성같은 근거지로 만들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당의 전략적 로선이며 전체 인민들의 일치한 지향이다. 우리 혁명의 리익, 그의 운명은 바로 공화국 북반부를 정치, 경제, 사상적으로 더욱 철옹성같이 꾸리는 데 전적으로 달려 있다.

조성된 이러한 현 정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혁명의 령도적 당인 우리 당 대렬을 조

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며 당 내에 사소한 불건실한 사상 행동도 없는 그러한 당, 누구나 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대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당을 꾸릴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 시기 해결을 요구하는 우리의 혁명 과업이 복잡하고 간고하며, 또한 우리의 혁명적 변혁이 전례없는 높은 템포와 깊은 심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 그러한 당을 꾸리는 문제는 각별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당을 꾸림으로써만 우리는 전체 인민들의 통일 단결과 나아가서는 일체 단결할 수 있는 모든 력량들과의 단결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인민을 령도하여 공화국 북반부를 철옹성같이 튼튼히 꾸릴 수 있다.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 자체를 먼저 튼튼히 꾸리지 않고서야 어찌 전체 인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으며 북반부를 철옹성같이 꾸릴 수 있겠는가! 우리 당을 튼튼히 꾸리는가 못 꾸리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승패를 해결하는 기본 관건이다.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할 데 대한 문제는 바로 그러한 당을 꾸리기 위한 전제로 된다. 유일한 당적 사상 체계에 의한 통일이 없이는 당의 조직적 및 행동상 통일이 있을 수 없으며 당 규률이 자각적 기초 우에서 수립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을 튼튼히 꾸릴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당은 바로 전 당이 유일한 당적 사상으로 튼튼히 뭉쳤을 때, 당 내에 잡색이 없을 때 강력하다. 전체 당원들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였을 때 전 당은 하나의 사고 방법 및 지도 방법, 하나의 당적 작풍으로 보조가 일치되며 또한 전체 인민들을 그렇게 무장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당과 인민은 일치한 보조로 움직일 수 있으며, 어떠한 대사변이 일어 나는 경우에도, 어떠한 곤난과 난관도 동요없이 능히 극복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오늘날 더욱 더 증대되고 있는 국가 및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당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 전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한사람같이 뭉쳐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대로 사고하며 행동하며 당의 지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집행하는, 당에 무한히 충실한 붉은 전사들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결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결코 우리에게 자만할 하등의 근거도 주지 않는다.

우리 당 앞에 제기되고 있는 과업은 심히 복잡하고 간고하다. 우리는 지금 정전 상태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무장한 반혁명이 우리와 직접 대치하고 있으며 그들의 책동은 아주 악랄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투쟁은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 내에는 아직도 당적 사상 체계와는 인연이 없는 사상 관점, 방법, 작풍, 품성들이 남아있으며 특히는 종파 여독들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는 력사적으로 형성된 종파 집단은 분쇄하였으나 그들이 남겨 놓은 여독은 아직 완전히 뿌리채 뽑아 버리지 못하였다.

당적 사상 체계와는 배치되는 이 모든 불건전한 사상 요소들은 당의 정책 관철을 저애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급격한 전진 운동에 적지 않은 손실을 주고 있다.

얼마 전에 있은 함북도 당 단체들에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집중 지도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종파 여독과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여독은 당 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저애함으로써 당 주위에의 대중의 결속을 저애하였으며 특히 함북도 농촌 경리 발전에 엄중한 해독을 주었다.

나타난 사실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농촌 경리 부문에서 지방주의 여독이 없는 데서는 자연 경제적 조건들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였으나 그 여독이 많은 지대에서는 자연 경제적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 과정에서도 보여 준 바와 같이 당적 사상 체계가 튼튼히 확립되고 조직 사업이 잘 된 곳에서는 당이 요구한 계획 과제 이상으로 일을 잘 했으나 그렇지 못한 데서는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일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종파 여독과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여독 및 기타 당의 사상과는 배치되는 일체 불건전한 사상 경향들을 극복하고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템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제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혁명 과업은 위대하고 방대하며 그의 속도는 비상히 빠르다. 우리 나라는 벌써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로 되였으며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일대 비약의 시기에 처하여 있다.

현실은 사상 의식에서의 보다 높은 발전과 개변, 대중 속에서의 공산주의적 의식의 강화, 정치, 경제 및 문화 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지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 사상 의식 수준의 제고, 공산주의적 사상으로의 튼튼한 무장, 과학적 지도의 확립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의의를 가져 본 때는 일찌기 없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 고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사상 의식이 현실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사상 의식의 락후성은 지도 방법 및 작풍에 반영되여 지도가 대중의 앙양된 창조적 적극성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

사상 의식, 지도 방법 및 작풍의 락후성은 우리 사회의 변혁의 속도가 비상히 빠른 까닭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며 당면한 일련의 경제적 과업의 수행에, 앙양된 대중의 적극성을 가일층 발양시킴에 있어서, 당의 주위에 인민 대중을 튼튼히 결속시킴에 있어서 적지 않은 손실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는 조직으로서의 우리 당의 역할을 더욱 제고할 것을 요구하는바 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당원들의 당적 사상 체계, 당적 지도 방법 및 작풍으로의 더욱 튼튼한 무장이 요구되며 그것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에 하루 속히 적응할 것을 가장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사정으로 하여 현 시기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는 문제가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

현 시기 당적 사상 체계의 더욱 튼튼한 확립에 있어서 중심 문제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꾸려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를 정치 사상적으로 철벽같이 지지 옹호하며 당의 정책, 결정들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데 있으며, 당의 정책, 결정 관철을 저애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 행동과 종파 잔재,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여독들을 종국적으로 뽑아 버리는 데 있다. 그리하여 《…100만 당원이 모두 숨을 쉬여도 같은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고 일치하게 행동》(김 일성)하는 그러한 확고한 기풍을 전 당적으로 수립하려는 데 있다.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기 위한 이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의식으로 무장하기 위한 공산주의 교양 사업과 불가분리의 련계를 가지고 있으며 호상 유기적으로 통일되여 있다. 사회주의 제도를 사랑하며 사회주의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는 공산주의 교양 사업은 사회주의 혁명

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령도자인 우리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공산주의자로 만들면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 당에 대한 충성심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며 당적 사상 체계가 확고히 수립될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항상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을 위한 투쟁과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병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서로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해방 전에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장기간 투쟁한 세련된 공산주의자들과 해방 후 당 및 국가 건설에 헌신적으로 참가한 검열된 투사들로 구성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중앙 위원회를 보위하며 그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그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전체 당원들의 제 1차적 임무이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를 철벽같이 지지 옹호하며 그 정책, 결정들을 철저히 관철하는 당적 기풍을 확고히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당이 걸어 온 길, 즉 우리 당의 혁명 전통과 우리 당의 투쟁 력사를 구체적으로 알며 정확하게 리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자기를 키워 준 당을 더욱 철벽같이 지지 옹호하게 되며 확고한 당적 립장, 당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에 벌써 우리 당의 고귀한 조직 사상적 기초, 당의 군중 사업의 기초, 당의 국제주의적 기초를 세우고 불요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는바 그들의 모든 활동은 우리가 되려고 하는 공산주의자의 모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룩한 고귀한 사상 체계, 사업 작풍은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으며 우리 당의 확고한 혁명 전통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고귀한 혁명 전통과 그를 이룩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그 창건된 력사로 보아서는 비록 청소하나 창건 첫날부터 온갖 내외의 적들을 물리치면서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여 나갈 수 있었으며 오늘 100만 당원—혁명가를 가진 강철의 대오로 강화 발전되였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고 오늘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투지와 세련되고 단련된, 현명하고 대담한 령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당 내에 잠입한 반당 반혁명 분자들, 각종 이색 분자들의 준동을 제때에 분쇄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또 전후 파괴된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고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나라를 급속히 전변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 전통과 투쟁 력사는 바로 이상과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리해할 수 있게 하는바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때 우리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를 더욱 철저히 지지 옹호하게 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당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당이 제기하는 혁명 과업 수행에 더욱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의 혁명 전통과 투쟁 력사에 대한 심오한 연구와 정확한 리해는 당적 사상 체계의 더욱 튼튼한 확립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현 시기 당적 사상 체계의 더욱 튼튼한 확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당이 내세우고 있는 전반적 정책과 또 자기 부문에 부과된 당적 과업, 정책들을 철저히 알고 그를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관철시키는 습성을 배양하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함북도 당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누구든지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는 습성을 배양해야 한다》.

우리 당의 정책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에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수립된 것이며 우리 사회 발전의 가장 성숙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의 정책, 결정들은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행동의 지침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이로부터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려면 우선 당의 정책을 똑똑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당적 주견을 확고히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의 정책, 결정의 심오한 내용을 똑똑히 파악할 수 없으며 또 그를 정확히 실천할 수도 없다.

경험은 당의 정책, 결정들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또한 그의 심오한 사상적 내용을 똑똑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의 정책을 외곡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엄중한 당적 과오까지 지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당 정책, 결정들을 한두 번 훑어 보는 식으로 그치는, 당 정책에 대한 형식적인 연구 방법을 가급적 속히 근절하여야 하며 당 정책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를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구체적으로 실속있게, 사실 그대로, 현실 그대로 당 정책을 철두 철미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어떤 곳, 어떤 조건하에서든지 당의 정책을 수호할 수 있으며 정확히 관철시킬 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의 정책에 의하여 실현된 우리 나라의 벅찬 현실은 생동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풍부하고 훌륭한 바탕이다. 이 바탕에 근거하여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체득할 수 있으며 그의 심오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정책에 대한 심오한 연구는 곧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대한 심오한 연구로 되는바 우리는 이 점을 똑똑히 알고 당의 정책을 더욱 심오하고 철저하게 연구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확고한 당적 주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의 정책, 결정들을 당원 대중들 뿐만 아니라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 해석 침투하는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한다.

당 정책이 아무리 현명하다 하여도 그것이 대중 속에 제때에 옳게 침투되지 않고서는, 또 대중 자신이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당 정책을 당원들이 철저히 알수록 좋고 당 정책에 대하여 대중 속에서 선전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인민들에 대한 교양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전 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보조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당 정책에 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말로써는 당 정책을 안다고 하나 그것이 실천과 결합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 중요한 것은 당의 정책, 결정들을 무조건 집행하며 그를 철저히 관철하는 데 있다.

우리가 당의 혁명 전통 및 투쟁 력사,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혁명 선렬들이 가졌던 그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 온 우리 당의 정책, 결정들을 실지 생활에 구현시키기 위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의 정책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관철하는 정신을 습성화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적 사상성이다.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기 위한 우리의 주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의 정책——이것은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한 것이며 전 당의 조직적 의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정책과 결정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당원들의 의무이다. 만일 당의 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는 기풍이 서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당의 정책, 결정을 무조건 집행할 데 대한 요구는 당원들을 실생활에서 당 중앙 위원회

의 의도대로 사고하며 행동케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아무리 곤난한 조건하에서도 당의 정책을 무조건 집행함으로써만 당의 강철 같은 사상 의지의 통일, 당적 사상 체계가 튼튼히 확립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당은 항상 생활을 향하여 우리 인민들을 전진시키고 있다. 당의 정책은,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가장 정확하며 정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하라는 대로 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지난 시기(지금도 그렇다)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일'군들이 남보다 재간이 특별히 많아서 일을 잘한 것이 아니다.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집행하는 사람들이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결의하였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달려있다. 량강도와 함북도의 실정은 바로 그에 대한 대조적 실례로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허다히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혁명의 급속한 전진을 위하여 당의 정책, 결정, 김 일성 동지의 교시의 관철 여부에 대하여 일상적인 주목을 돌리며 그를 집행하지 않는 경향, 그 교시대로 하지 않은 경향들과는 비록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묵과하지 말고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정책, 결정,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종파 잔재,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여독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투쟁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과거 종파 분자들은 례외없이 당의 정책,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을 의식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으며 결과에 우리의 전진 운동에 적지 않은 손실을 주었다.

이러한 점을 똑똑히 알고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견결하게 진행해야 한다. 당의 결정 집행이 무조건적인 것만큼 어떠한 곤난에 봉착하든지 간에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라도 그를 관철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당적 사상성, 희생성, 헌신성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사람들은 결정을 집행할 때 먼저 곤난에 대하여 말하며 많은 문제들을 상부에서 해결해 줄 것을 제기하는바 이것은 곧 당성이 강하지 못한 표현이다.

물론 당의 결정,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곤난이 없을 수 없다. 전진 도상에는 반드시 곤난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곤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있다. 즉 곤난 앞에서 머리를 숙이겠는가, 곤난을 박차고 나가겠는가, 곤난에 굴복하는가, 곤난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가 하는 데 있다.

곤난은 비겁 분자나 위협할 수 있으나 공산주의자는 놀래울 수 없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모든 곤난을 극복한다. 바로 이러한 견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결성, 적극성, 완강성과 함께 당 정책 집행에서 자기 지방의 구체적인 실정을 료해하고 당의 정책을 창조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창발성도 필요하다.

우리의 일'군들은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창발성없이 일하며 지어 어떤 사람들은 인형극의 인형과 같이 일한다》. 그 결과에 당 정책이 인민들 속에 철저히 심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에서 더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어는 당 정책을 외곡까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창발성있게 일하는 기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 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인 우리 당의 매개 당원은 우리 나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정책과 사회주의적 원칙을 실현할 데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에게 부과된 그 사업의 테두리 내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대중의 리익, 당의 리익에 관계되는 모든 면에 뛰여 들어 가야 하며 대중의 리익, 당의 리익을 경각성있게 수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당원들은 자기에게 직접 부과된 임무가 아니라 하여 《이것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성——이것은 사실상 당에 대한 커다란 죄악이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방관자로 될 수 없으며 모든 일에서 투사가 되여야 한다. 어떠한 부문, 어떠한 곳에서 나타나든지 간에 당 정책을 외곡하는 일체 불건전한 현상과는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당 결정, 지시의 무조건 집행을 위하여 현시기 중요한 것은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천리마 운동을 더욱 촉진시키며 전 당의 행동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극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급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당원은 당의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당 하급 기관은 당 상급 기관에 복종하며 전체 당 단체는 중앙 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는 당 생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와 결정에 의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여야 할 것이다.

당 생활에서의 고도의 원칙성, 즉 모든 문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건설적 의견들을 제기하며 결함에 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동시에 일단 채택된 결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기 개인의 의견과 일치하던 안 하던 간에 그에 무조건 복종하는 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당 조직에 튼튼히 의거하지 않거나 그에 복종하기를 사실상 거부하며 당의 정책과 결정들을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하나 뒤에 가서는 비방하면서 그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향들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지방주의, 가족주의, 기관 본위주의적 경향들을 퇴치할 수 있다.

당적 사상 체계의 더욱 튼튼한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각급 당 단체들 앞에는 더욱 커다란 역할을 놀아야 할 과업이 제기되여 있다. 만일 매개 당 단체들에서 당 생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판과 자기 비판이 높은 수준에서 조직 전개되며 사상 사업이 잘 전개된다면 매개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단련됨으로써 그들의 당적 사상으로의 무장은 보다 급속히 성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각급 당 단체들은 매개 당원들의 당적 사상 체계의 더욱 튼튼한 확립을 위하여 특히 사상 사업에 제 1차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사상 사업에서의 온갖 형식주의를 퇴치하며 실생활과 결부된 사상 사업의 확립을 위하여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적 사상 체계의 더욱 튼튼한 확립을 위한 투쟁——이것은 심각한 당 내 사상 투쟁이다. 우리는 이 투쟁이 우리 혁명의 급속한 촉진에, 우리 혁명의 장래 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지도와 대중과의 결합

김 상 섭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여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였으며 근로 대중의 창조적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과 대중의 창조적 열의에 지도를 따라 세우는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더욱 촉진하는 데 있어서 긴절한 문제로 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당은 일'군들의 지도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일'군들의 지도 사업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기본 문제로 되는 것은 과학적 령도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다. 과학적 령도 방법이란 요컨대 맑스주의적 유물론과 변증법의 제 원리에 립각한 지도 방법으로서 그의 기본 원칙은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하는 것이며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것이며 경제 사업과 정치·사업을 결합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당 사업에서 과학적 령도 방법을 확립하자면 무엇보다도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령도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도와 대중을 련결시키는 문제이다》(당 중앙 위원회 1955년, 4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중에서)라고 교시하였다.

당 사업에서 지도와 대중을 결합할 데 대한 문제는 군중 로선의 기본 요구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중 로선은 우리 당과 그리고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의 정치 로선 및 조직 로선의 기초이다. 우리 당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이 로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로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인민 대중의 해방과 행복을 위한 대중 자체의 사업이다. 대중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수행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한다. 그런데 당은 인민 대중 속에서 나온, 인민의 한 부분으로서 대중의 혁명 사업을 령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 즉 그의 사명은 인민 대중에게 투쟁의 옳바른 방향과 방침을 제시하여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당은 철두철미 인민 대중에게 복무하는 립장, 자기 사업에서 인민 앞에 책임지는 립장에 서야 한다.

또한 당은 대중을 지도 방조하여 혁명 투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자면 어디까지나 인민 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사업하는 립장에 서야 한다. 인민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민 대중이 자각적으로 동원됨이 없이는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민 대중도 자기의 선봉대인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가 없이는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다. 때문에 당은 언제나 대중에게서 배우는 동시에 대중을 가르치는 립장에 서야 한다.

당은 또한 인민의 리익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리익과 배치되는 경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이 대체로 맑스—레닌주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의 립장이다.

당이 이러한 원칙적 립장을 견지하여 대중에 대한 령도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혁명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사업 방법에서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원칙 즉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을 가르치라》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4권, 1953년 판, 385페지 참조).

지도와 대중을 결합한다는 것은 즉 대중의

투쟁을 지도하기 위한 당의 로선, 정책, 방침이 대중의 구체적 정형과 그들 자신의 의견, 념원에 기초하여 작성되며 이 정책, 방침이 대중 자신의 정책, 방침으로 접수되여 그들 자신이 자각적으로 발동되여 이를 집행하도록 지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실현하자면 당은 언제나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울 줄 알아야 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설복할 줄 알아야 하며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당은 대중을 초월하여 대중 우에 서거나 그들에게 명령하며 호령하는 자로 되여서는 안 된다. 당은 또한 대중을 인도함에 있어서 그들의 각성 정도를 돌보지 않고 지내 앞서 나가거나 대중보다 뒤떨어져도 안 된다.

즉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당은 대중으로부터 유리되거나 리탈되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대중으로부터 리탈된다면 그가 수립하는 로선, 정책, 방침이 대중과 객관적 현실의 요구에 부합될 수 없으며 그것을 집행하는 데 대중이 자각적 헌신적으로 동원될 수 없다.

당이 대중과 유리됨이 없이 그의 지도가 대중과 긴밀히 결합되여 있을 때에라야만 대중은 당의 주위에 한사람같이 뭉치여 당을 지지하고 옹호하게 될 것이며 당의 정책, 로선을 진정으로 자기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견지하며 관철시키는 데 모든 열성과 창발성, 헌신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라야만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불패의 것으로 될 것이며 혁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을 강화해야 하며 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워야 한다. 군중을 쟁취함이 없이는 당도 강화할 수 없고 혁명도 할 수 없다》(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중에서).

그러면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실현하여야 하는가. 당적 지도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 정책 실행을 위한 옳은 지도 방침을 세워야 하며 당 정책 집행을 정확히 조직하여야 하며 집행에 대한 검토 총화 사업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이 모든 측면에서 다 같이 실속있게 구현되여야 한다.

* *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군중 로선에 철저히 립각하고 세계 인식과 세계 개조의 무기인 유물 변증법의 제 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언제나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해에 가장 부합되는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지방 당 단체들과 기관, 기업소 내 당 단체들은 이 모범을 따라 자기 지방, 사업 부문들에서 당 정책을 정확히 그리고 창조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 정책의 실행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원칙을 구현하자면 한편 **당 정책, 당 중앙의 의도를 본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동시에 자기 지방 또는 사업 부문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레닌은 맑스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것, 맑스주의의 산 정신은 구체적 정세의 구체적 분석이라고 강조하였다(전집, 31권, 조선문 판, 190페지 참조).

각급 당 단체들은 일상적으로 군중의 구성, 심리, 요구, 동태 그리고 해당 지방과 기업소들의 경제적, 기술적 조건들을 조사 연구하여 추상적으로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똑똑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반드시 하부에 내려가서 대중과 토의하여야 한다. 례하면 군 당 위원회에서는 우선 군'급 기관 일'군들과 토의하여야 하며 초급 당 단체에도 내려가 자료와 군중의 의견들을 수집하여야 하며 자기 지방의 특수한 조건들을 정확히 참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자기 지방의 구체적 조건에 적합하고 창발적인 구체적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가령 축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당 중앙은 전국적인 정형에 기초하여 100호당 어떤 가축 몇 두씩을 보유할 것을 제시하였다면 군

당 위원회는 자기 군의 실정에서 그보다 더 많이 할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토대 우에서만 대책을 옳바로 세울 수 있다.

또 당 정책, 당 중앙의 구호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자기 실정에 맞는 창조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례하면 어느 쎄멘트 공장에서 설비와 부속품이 부족되여 난관에 봉착하였다고 하자. 이때에 만약 이런 문제에 대한 당 중앙의 의도를 명백히 안다면 우만 쳐다 보거나 다른 기계 공장에만 기대를 걸고 앉아 있지 않을 것이며 자체의 공무 동력 직장의 력량을 조직 동원하여 자체로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당 단체들은 응당 간부들과 당원, 비당원 대중을 이런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당 정책과 당의 구호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접수하며 군중의 의견, 집체적 지혜에 의거하지 않고 하부에 내려가 보지 않으며 사무실에 앉아서 회의와 문서 노름에만 시간을 보내는 사업 작풍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관주의적, 형식주의적 오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개인의 협소한 경험으로써 현실을 재면서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면 경험주의의 오유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교조주의, 경험주의 등 형태로 표현되는 주관주의는 요컨대 객관적 현실에 맞지 않는 주관적 판단 또는 욕망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세우는 데서 범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당과 대중에게 손실을 끼치게 된다.

오늘 사무실적 사업 작풍과 주관주의, 형식주의는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저애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된다. 따라서 이를 청산하는 것은 우리의 지도 사업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이다.

주관주의란 원래는 착취 계급에게 고유한 관념론적 사고 방식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경우에는 주로 사물을 변증법적으로 인식할 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즉 인식이 잘못되기 때문에 주관이 객관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들이 주관주의적 오유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중 속으로 들어 가야 하며 객관적 사물과 현상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그대로 즉 호상 련관과 운동 발전의 견지에서, 모순의 통일과 투쟁 등등의 견지에서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물 변증법을 학습하여 정확히 체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야만 사물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 정세와 사람들의 정치 생활에는 일련의 복잡한 사정이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은 류례드문 속도로 발전하면서 매일과 같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도 똑똑하게 깊이 알아야지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아무런 과학적 지도도 보장할 수 없다.

당 단체들이 수립하는 대책들이 진실로 과학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의 중심 고리를 틀어 쥘 줄 알아야 하며 사업의 경중과 선후차를 옳게 가릴줄 알아야 한다. 혁명 사업의 매개 단계, 크고 작은 매개 분야에는 반드시 틀어 잡아야 할 중심 고리가 있다. 이 중심 고리를 풀면 다른 모든 고리들이 다 풀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중심 고리를 풀면 하나의 국면이 타개되고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며 새로운 중심 고리가 나타난다.

문제를 설정하고 과업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중심 고리를 포착하지 못하고 사업의 경중과 선후차를 옳게 규정하지 못한다면 차요한 사업에 력량을 분산시켜 손실을 가져 오게 된다. 중심 고리 문제, 이것은 지도 사업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이다.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는 이 점에 있어서도 언제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례하면 전후 시기에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이에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배합하며 농업에서는 알곡을 위주로 하여 공예 작물과 축산업을 이에 배합함으로써 가장 정당한 로선을 제시하였다. 중공업에 있어서는 철과 기계 문제를 중심 고리로 삼고 있다.

지방 당 단체들이 가령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틀어 잡고 해결하여야 할 중심 고리는 사료 기지 문제로 될 것이며 지방 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적 원료 원천과 자재의 동원 리용에 주되는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중심 고리를 틀어 잡는다는 것은 변증법에서의 호상 련관과 모순의 법칙의 리용이다. 문제를 세운다는 것은 해결하여야 할 모순을 포착하는 것이며 중심 고리를 잡는다는 것은 호상 련관되고 호상 작용하는 여러 가지 모순중에서 주요 모순을 찾아 내며 모순에서 주동적인 측면을 틀어 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실지 사업에서 그것을 체득해 보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 훈련을 쌓아야 한다.

중심 고리를 보지 못하거나 차요한 고리를 중심 고리로 보고 문제를 설정하며 과업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주관주의적 오유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당 정책 실행 대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중과 상론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와 사무실적 사업 작풍을 청산하는 것은 오늘 지도와 대중을 밀접하게 결합하여 지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첫째가는 문제로 된다.

다음으로 결정 집행을 조직하는 사업에서는 우선 당의 결정, 방침을 대중 속에 침투시키는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

이 사업에서 유일한 방법은 설복과 해설이다. 김 일성 동지는 《맑스—레닌주의 당에 있어서 그의 지도와 대중과의 련계의 유일한 형태는 설복의 방법이다》(당 중앙 위원회 1955년 4월 전원 회의에서 한 보고에서)라고 지적하였다.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

지도 사업에서 방침을 옳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대중이 당의 정책, 방침을 접수하고 그 실천에 **자각적, 자원적**으로 동원되는 것이다. 때문에 당의 지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을 당 정책 실행에로 발동시키는 것이다.

이 사업이 과연 강제나 명령의 방법으로 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강제와 명령의 방법으로써는 대중을 자각적으로 발동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불평 불만을 사게 될 것이다. 대중이 자각적으로 발동되지 않고서는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 해설하고 설복하는 이외에 군중을 자각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때문에 해설과 설복은 대중을 지도하는 사업에서 기본 방법으로 되며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기본 형태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당 단체들과 당 일'군들은 아직도 설복과 해설의 방법으로 군중을 자각적으로 발동시키지 못하고 행정식, 명령식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 그들은 당 사업이란 무엇인가를 잊어 버리고 흔히 행정 사업을 대행하거나 혹은 주관주의적, 형식주의적 태도로써 사업하는 데서 자연히 행정식, 명령식 방법으로 내려 먹이게 된다.

행정을 대행하거나 명령식으로 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며 안일한 사업 태도이다. 당 사업을 진실로 정치 사업으로 되게 하며 사람들을 설복하여 궐기시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중이 일단 설복되고 자각적으로 궐기할 때 그 힘은 무서운 것이며 바로 그 힘만이 산을 가르고 바다를 막을 수 있으며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오늘의 우리 인민은 일제 시대의 인민이 아니며 전쟁 전 시기의 인민이 아니다. 모두가 다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사회주의 건설자들이다. 그들은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가 자기들을 어김없이 승리와 행복에로, 보다 광명한 미래에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들끓는 로력적, 정치적 열의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에게 명령하고 내려 먹인다는 것은 도대체 격에 맞지 않는 일이다. 행정식, 명령식 방법은 지도를 대중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당의 지도로부터 유리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것은 백번 유해로운 사업 방법이다.

그러면 해설과 설복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가?

해설과 설복은 추상적, 형식적으로 되지 말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실속있게 진행되여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당과 그 정책에 대한 헌신성과 적극성으로 불타 오르게 하며 공산주의적 사상과 정열로 무장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설과 설복이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 과업, 생동하는 현실, 군중들의 실지 사업과 긴밀히 결부되여야 하며 또 각이한 대상들에 적응하게 다양하고 창조적으로 되여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은 복잡하다. 거기에는 성과도 거대하며 애로도 많다. 로동자, 농민들은 모두 다 자기 사업에서 어떻게 혁신을 일으키며 계획을 달성하며 당 정책을 관철시킬 것인가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해설과 설복, 사상 교양 사업이 당면 과업, 실지 사업과 동떨어져서야 어찌 대중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군중의 구성은 복잡하고 매 개인의 지향과 정서, 의식과 지식 정도 등등은 각이하다. 이러한 대상들에게 있어서 일률적인 선전이 효과를 낼 수 없다. 일반적 호소와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설복의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있어서 담화와 강습의 방법이 아주 좋다고 김 일성 동지는 가르쳤다.

과업이 규정되고 방침이 설정되면 해설과 설복으로 이를 침투시키는 동시에 다음으로 결정 집행이 조직되여야 한다. 각급 당 단체들은 응당 제기된 과업의 크기와 중요성 정도에 따라 그에 적응한 력량을 조치하여야 한다. 간부를 배치하며 핵심을 꾸리며 책임을 분공하며 군중을 동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바로 군중에 철저히 의거할 줄 알아야 한다. 인민반 사업, 민주 선전실 사업에 이르기까지도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을 발동시켜야만 성과적으로 할 수 있다.

결정 집행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오늘 당 단체들과 기관, 기업소 지도 일’군들 앞에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과학적 타산과 예견성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공업, 농업 및 건설 사업은 높은 발전 수준에 도달하였고 대중의 기세는 충천하여 생산과 건설의 속도는 비상하다. 따라서 어떤 과업을 해결하는 데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현존하는 모든 가능성들을 동원하며 새로운 조건들을 조성하도록 하는 조직 사업을 현실의 요구에 따라 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급속히 변화할 래일의 정세하에서 필요하게 될 조건들도 예견하여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 타산과 예견성이 없이는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을 지도할 수 없다.

례를 들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10만 정보의 과수원을 개간 확장하자면 지방 당 단체들은 이를 위한 강력한 사상 동원 사업과 함께 치밀한 조직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선 그 부문에 당 정책에 정통한 일’군을 동원하며 모든 일’군들에게 당 정책을 철저히 침투시켜야 하며 다음에는 새 것에 민감한 핵심 당원들과 청년 열성자들을 동원하여야 하며 기술 일’군들도 배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개간 적지를 선정하며 묘목을 키워내는 등 기술 경제적 조치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 몇 년 있으면 훌륭한 과수원이 조성될 것이며 거기에서는 많은 과실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을 예견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 례하면 과수원 관리에 익숙한 기술, 기능 일’군들을 지금부터 양성해야 하며 과실 가공 공장의 설치 같은 것도 예견하여야 한다.

이 모든 사업 조직들은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당 단체가 꼭 류의하여야 할 점들이다.

최근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명백히 된 바와 같이 일부 성(국) 지도 일’군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토의하면서 근로자들이 결의한 데 따라 계획은 방대하게 세워 놓고 실지에 구체적인 조직적 대책을 잘 강구해 주지 못함으로써 대중의 결의들을 충분히 실천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일’군들은 우선 대중의 결의에 정당한 평가를 주지 못했고 과학적 타산이 부족하였으며 대중의 열의에 지도를 따라 세우지 못했다. 이것은 천리마의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를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따라 세워야 하며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련결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결정 집행을 조직한 다음에는 사업을 시작한 그날부터 집행에 대한 검토 사업이 따라가야 한다.

이것은 당 단체들이 자기가 료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수립한 방침이 정확했는가 어떤가를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는 과정이다. 집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군중이 당 정책을 옳게 접수하였는가, 그들이 충분히 발동되였는가, 어떤 편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해결을 요하는 어떤 애로가 없는가, 어떤 새로운 보충적 대책이 요구되지 않는가 등을 살펴야 하며 해당한 조치를 즉시에 취하여야 한다.

이 사업도 물론 사무실에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현지에 나가고 군중 속에 들어 가서 진행하여야 한다. 현지에 나가서도 간부들과 몇몇 핵심 당원들만을 상대로 하여 사업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광범한 군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담화와 토론의 방법이 효과적이다.

집행에 대한 검토 사업의 목적은 결함을 들추어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 정책, 방침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방조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결함은 당 중앙 위원회가 언제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커지기 전에 그 자리에서 시정해 주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집행에 대한 검토는 당 중앙 위원회의 집중 지도의 방법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례를 들어 어떤 공장에 나갔다고 하자. 우선 공장 실정을 분석하고 료해하여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강연 기타 방법으로 당 정책, 당 중앙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인식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당의 정책과 요구를 잘 인식하고 이에 비추어 자기들의 사업을 자체로서 검토해 보고 우결점이 무엇이며 결함의 원인이 어디 있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혀 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지도 나간 동무는 대중 자신에 의하여 밝혀진 결함들을 신중하게 분석, 종합하여 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하나 하나 고쳐 나가도록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대중과 더불어 진지하게 상론하면서 현지에서 해당한 대책을 찾아내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을 방조하여 그들 자신이 자기의 결함을 고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집행을 검토하는 동시에 반드시 사업을 총화하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일을 벌려만 놓고 총화하지 않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무조직적인 사업 태도이다.

사업 총화는 이미 진행된 사업의 경험들을 집중하고 분석 종합함으로써 긍정적인 것을 일반화하고 부정적인 것은 반복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집행에 대한 검토와 총화가 없다면 혁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인 당 정책 실천 행정을 자연 생장성에 방임하는 것으로 되며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된다. 집행에 대한 검토와 총화로써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완성하는 것은 다음의 새로운 문제 제기, 새로운 과업 수행에로 넘어 가기 위한 전제로 되며 출발점으로 된다.

* *

당 지도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확립하며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은 오늘 지도 사업을 개선하며 그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고리로 된다.

우리는 이 고리를 든든히 틀어 쥐고 지도 사업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더욱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로동 계급의 공산주의적 발기—《천리마 작업반》 운동

허 재 수

오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답게 일하며 생활하자》라는 구호하에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 속에서 일어 난 새로운, 공산주의적 발기이다.

강선 제강소 제강 직장 진 응원 작업반원들이 발기한 이 영예로운 운동은 짧은 기간 내에 벌써 우리의 선진적 로동자들 속에 뿐만 아니라 상업 류통, 보건, 문화 예술 등 비생산 부문에까지 퍼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날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운동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의 결의에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들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생산의 기계화 수준을 높이며 원가를 저하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고 있으며 과학 지식과 선진 기술을 부단히 배워 가까운 년간에 기사, 기수의 수준에 도달하며,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확립하고 일체 생활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릴 것을 결의하고 있다. 또한 자체의 의식을 부단히 개조함으로써 우리 당의 참다운 붉은 전사—공산주의자로 육성 단련될 것을 자기의 제 1차적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이 운동은 우리 사회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였으며 우리 당의 령도하에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향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목적과 강력한 지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운동은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계속 앙양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의 직접적 산물이며 천리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바로 이렇게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그의 근원을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 두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적 열의가 고도로 앙양된 우리 근로자들 앞에 웅장한 설계도를 펼쳐 주고 있다. 당은 기술, 문화 혁명을 촉진시키는 기초 우에서 앞으로 4—5년 내에 우리의 사회주의적 공업을 3—4배로 발전시키며 2—3년 내에 농업 생산을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킬 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실로 영예로운 일이다. 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공산주의가 가까운 수평선상에 바라보이는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서게 될 것이다.

위대한 목적은 위대한 힘을 낳는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바로 이 위대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로동 계급의 새로운 보다 높은 사회주의 경쟁 형태이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 준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혁명적 전진 운동인 것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대중의 밑으로부터의 창발적 활동으로 발생하였으며 그것은 짧은 기간에 대중 속에 확대되고 있는바 이 사실은 그가 강력한 물질 정신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최근 년간에 우리 인민의 생활에는 거대한 변혁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지난 해에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의 력사적인 위업을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낡은 사회의 력사적 유물인 착취 관계는 완전히 근절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착취적 요소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되였다.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완전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은 례외없이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적 사회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근로자들 속에 로동에 대한 전혀 새로운 태도를 발생 발전시켰는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바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새로운 싹이다.

또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공고 발전은 생산 과정에서의 일'군들의 호상 관계를 날로 새롭게 하고 있다. 지도 일'군들과 생산자들 호상 간,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호상 간, 로동자들 호상 간에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호상 협조와 방조의 관계가 더욱 더 발전 공고화되고 있다.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우리 나라의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하여 일어 난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는 더욱 더 앙양되고 있으며, 당 정책을 적극 지지하여 나선 근로자들은 매일 매 시각 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하고 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와 근로 대중의 무비의 창조적 열성에 의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에 착수한지 2년 남짓한 금년 1.4 분기에 벌써 우리 공업의 수준은 계획에 예견된 1961년 수준의 87%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8.15 해방 14주년 기념일 이전에 제 1차 5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갖게 되였다.

당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제시한 전후 경제 건설의 총로선——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경제 정책과,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이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을 분쇄하고 이를 철저히 관철시켜 온 결과 전후 불과 5년이 경과한 우리 나라는 벌써 세기적 락후성을 퇴치하고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 동방에서 가장 발전된 공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우리는 지금 자체의 힘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선진적 기계 설비들을 능히 생산할 수 있게 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은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그리고 급속히 촉진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완전한 승리 및 그의 공고 발전과 급속도로 장성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생산력에 기초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발생될 수 있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생산력을 급속히 장성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계획 과제를 넘쳐 완수하며 생산 공정의 기계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제고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바 례컨대 룡성 기계 공장 주 성일 작업반은 전년에 비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3.2배로, 흥남 비료 공장 김 칠산 작업반은 3.3배로 각각 장성시킬 목표를 제기하고 있다.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이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공산주의는 자발적이고 자각적이며 단결되여 있고 또 선진적인 기술을 리용하고 있는 로동자들의 일층 더 높은——자본주의적 로동 생산성에 비하여——로동 생산성을 의미한다》(《웨. 이. 레닌——맑스, 엥겔스, 맑스주의》 모쓰크바, 조선문 판, 620페지).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에 기초한 생산력의 급속한 장성에서 우리 로동 계급이 소유하고 있는 풍부한 생산 경험과 부단히 장성하고 있는 기술 기능 수준은 커다란 역할을

놓고 있다.

우리 일'군들의 높은 기술 기능 수준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발생시킴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지난 시기에 갖은 난관과 결핍을 이겨 가면서 오늘의 빛나는 성과를 쌓은 우리 근로자들의 풍부한 투쟁 경험은 우리 인민의 가장 고귀한 재부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기능 급수를 더욱 제고하고 가까운 년간에 기사, 기수의 수준에까지 도달할 데 대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의 결의가 실천될 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되고 있다.

김책 제철소 용광로 직장 황 대영 작업반원들은 자기들의 평균 기능 급수를 5.5급으로부터 7급으로 높이며 가까운 시기에 모두 기사, 기수의 수준에까지 도달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들은 지난 시기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 간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기사, 기수 4명과 6—7급공을 35명이나 양성했는바 여기서 얻은 경험과 성과는 앞으로의 기능 수준 향상을 위한 믿음직한 밑천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발생시킨 물질적 근원은 이상과 같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체의 거대한 정신적 근원도 가지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영웅적 로동 계급의 불같은 열정의 표현이며 당에 무한히 충실하려는 공산주의적 당성의 발현이다. 우리 로동 계급의 이 드높은 혁명적 열의,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것이 바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정신적 근원을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 대중 자신의 창조적 사업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대중적 적극성이 노는 역할은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바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로동 계급 자신의 창조물이며 이 운동은 대중들 속에서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 발전의 산물로 된다.

우리 인민은 과거로부터 어렵게 살아 왔고 내외의 온갖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에서 형성된 고도의 혁명성을 소유하고 있다. 《… 우리의 사상은 남만 못지 않게 진보적이며 빨리 나아가겠다는 각오가 남보다 더욱 높으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혁명적 기질이 아주 풍부하다》(김 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특히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15개 성상의 간고하고 영광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이룩하여 놓은 빛나는 혁명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혁명 전통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고 있으며 우리 근로자들의 실생활에 구현되고 있다.

특히 최근 년간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을 반대하여 전개된 전 당적 전 인민적인 투쟁, 우리의 전진 운동을 저애하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대중은 우리 당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은 전례없이 앙양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시기에 근로자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의 강화, 혁명 전통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사업의 강화는 우리 인민의 사상 의식 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답게 일하며 생활하자》라는 구호에는 바로 우리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배우며 그를 계승하자는 근로자들의 지향과 함께 또한 사회주의—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촉진시키기 위한 혁명 투쟁에서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를 실현하는 자기들의 궁지가 표현되여 있다.

진 응원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1957년, 1958년에 각각 강철 생산을 전 해에 비하여 1.5배씩 제고하였는바, 《비결》은 전체 집단이 당이 제기한 과업을 수행하려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굳게 단합되였으며 서로 배우고 도와 주면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킨 데 있었다. 그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와 또한 공산주의 교양을 통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앞장에 서서 나아갈 굳은 결의를 다지면서 자기들의 집단적 혁신 운동의 성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발기했던 것이다.

이 운동의 모든 참가자들은 바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간고한 혁명 투쟁 행정에서 오직 맑스—레닌주의의 승리에 대한 불타는 신념을 갖고 모든 난관을 극복한 것처럼 자기 사업에서 부딪치는 애로들을 혁명적으로 타개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생 및 발전은 맑스—레닌주의의 지도적 원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혁명을 향도하고 있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 *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발생시킨 물질 정신적 근원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전 과정을 통하여 준비되였으며 현 시기에 와서 확고하게 성숙되였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서 대중의 창조적 활동인 사회주의 경쟁은 거대한 역할을 놀아 왔다. 근로자들의 자각적이고 자발적인 이 운동은 과거에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현재에도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거대한 력량으로 되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의 일'군들의 경쟁은 생산에 대한 일'군들의 관계와 함께 생산자들 호상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그것은 생산 관계의 교체와 발전에 따라 그리고 생산력의 발전 수준에 의하여 그의 성격과 내용을 달리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증산 경쟁 운동은 해방 직후로부터 발생 발전하여 왔는바 인민 경제 발전의 매개 시기에 그의 내용은 변화 발전되여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의 력사적 환경 속에서 집단적 혁신 운동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집단적 혁신 운동은 보다 높은 생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집체적 지혜를 동원하며 모든 일'군들로 하여금 선진 일'군들이 도달한 수준에까지 도달하도록 호상 방조, 협조하는 투쟁이다. 이것은 종래의 경쟁 운동의 계승이며 보다 높은 발전 형태이다. 집단적 혁신 운동은 로동 계급 속에서부터 시작되여 점차 우리의 협동적 농민들 속에까지 확대 발전되였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과 과업은 더욱 새로운 방법과 태도를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작년 실적에 비하여 근 2배로 장성한 금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강령적 전망 과업을 앞당겨 실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위해서는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근로자들의 의식 개변을 긴절하게 요구한다. 《우리가 하루 속히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서기 위해서는 근로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김 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이와 같은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새 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보다 높은 형태의 경쟁 운동이다.

종래의 모든 경쟁 운동은 주로는 생산 계획을 초과 달성하며 원가를 저하하고 생산 공정을 더욱 합리화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 머물렀다. 일'군들의 기능 수준 제고도, 사상 교양 문제도 제기되였으나 이것은 생산 성과의 확대에 복종되여 있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물론 생산의 부단한 확대와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을 선차적으로 내세운다.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생산 수준에서, 단 1년 간에 근 2배의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4—5년 내에 3—4배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전례없이 높은 생산의 확대와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목표, 이것이 이 운동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생산의 확대와 함께 기술, 문화 혁명의 수행을 촉진시키며 사상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 것을 중요한 목표로 일치하게 제기하고 있다. 생산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까지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관계가 사람들 간에 확립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신조이다.

이와 같이 경쟁 운동의 목표가 포괄하는 범위를 확대한 것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다. 이것은 현 시기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모든 분야의 과업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애국적인 운동이다.

또한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자기들의 가족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답게 교양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로써 경쟁은 더욱 더 포괄 범위를 확대하게 되였다. 공산주의자다운 도덕 기풍을 수립하며 생활을 보다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는 투쟁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의 가족이 노는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기사, 기수의 수준에까지 제고하며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생활을 문화 위생적으로 조직하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확립케 함으로써 생산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당면한 금년도 생산 계획을 달성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제기된 강령적 과업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또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가일층 공고화하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의 교양적 의의가 크다. 강선 제강소 진 응원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특히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또 자기 작업반의 리익을 전체 직장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실질적인 미풍으로써 다른 작업반 성원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들은 다음 교대에게 가장 량호한 상태의 전기로를 인계하여 주며 교대 작업반의 작업 조건을 솔선 철저히 보장하여 준다. 과거 일부 작업반에 존재하였던 자기 생산 성과에만 눈이 어두운 본위주의적 경향은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아 일소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진 응원 작업반이 일하고 있는 제 3호로의 전체 성원들은 어느 누구들보다도 화목하며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서 모범적이다. 지금 그들은 점차 자기들의 전기로를 《천리마 로》로 전환시킬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 실례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교양적 의의를 설명하여 준다.

이와 같은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이 운동은 비단 사회주의 경쟁 운동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특징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특징 짓는 또 하나의 사변으로 된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증시하여 주고 있다.

* *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거대한 장래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싹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산주의적 싹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의 첫째가는 의무라고 교시하였다. 오늘 매개 당 단체들이 근로자들을 조직 동원하여 로동 계급의 공산주의적 발기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백방으로 지지하는 것은 레닌의 이 교시를 실천하는 것으로 된다. 그들의 결의가 성과적으로,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면서 이 운동의 광범한 확대를 보장하는 것이 현 시기 우리의 첫째가는 의무이다. 작업반으로부터 직장으로, 나아가서는 공장 전체가 이 운동에 참가하도록 각급 당 단체들은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직맹 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천리마의 기수들인 근로자들의 기세는 비할 바 없이 높다. 이에 기초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바 우리는 이에 자만하지 말고 계속 이 운동이 갖는 정치 경제적 의의를 근로자들 속에 해석 선전하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

욱 교양함으로써 상업 류통, 보건, 교육 문화 등 비생산 부문까지를 포괄하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 더욱 더 확대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확대 심입하는 투쟁에서 매개 분야, 매개 단위의 특성에 맞게 결의들을 채택케 하고 적당한 형식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률적인 것은 형식주의를 면치 못한다. 특히 금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며 제품의 질을 제고하면서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키는 과업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타산된 결의만이 현실적인 것이다. 또한 달성된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며 그 경험을 다른 작업반들에게 널리 보급 일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결의를 실정에 맞게, 실천 대책까지 충분히 타산하면서 구체적으로 채택하며, 일단 채택된 결의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온갖 기술 조건들을 비롯한 작업 및 학습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는 것이 이 부문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채택된 결의가 결의 자체로 남아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오직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충분한 조건과 구체적인 지도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 단체들은 직맹 및 민청 단체들을 발동시켜 결의를 실천하는 투쟁에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는 당의 호소가 관철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전체 근로자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아무런 타산도 없이 결의를 《채택》하며 대중들에 대한 정치 사업도 하지 않고 종전의 작업반의 명칭만 바꾸어 놓는 식으로 이 운동의 대렬을 《확대》시키는 것은 또한 형식주의의 표현이다. 당 단체들과 특히 직맹 단체들은 인내성있게 근로자들의 진정한 결의가 자신들에 의하여 채택되고 그의 실천 대책까지 제시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적으로 호상 련결된 린접 부문의 일'군들이 자기들도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대렬에 용감히 들어 서며 자기의 생산 성과로써 다른 부문 일'군들의 결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지도 방조와 전 인민적인 지지가 없이는 이 새로운 싹이 성과적으로 자라날 수 없다.

이 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천리마의 기수들인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함으로써 우리의 전진을 더욱 성과적인 것으로, 더 빠른 것으로 하기 위한 투쟁이다.

《천리마 작업반》, 이것은 우리 시대의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이것은 오로지 내부를 진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으로 튼튼히 꾸리고 새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며 생산에서 불요 불굴의 애국적 헌신성과 로력적 위훈을 발휘함으로써만 쟁취될 수 있다.

이 새로운 공산주의적 발기가 우리의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대중 운동의 불'길로 전환될 것은 추호도 의심할 바 없다.

당의 축산 정책 관철에서 당성을 고수하자

렴 의 재

축산업 발전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는 최근 우리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가 특히 절실하게, 그리고 부단히 강조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1958년 10월에 있은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는 우리 나라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의 길을 열어 놓았다. 회의는 축산업 발전 문제를 축산물에 대한 인민의 수요, 축산업과 전반적 농촌 경리 및 인민 경제의 기타 부문과의 밀접한 련관 속에서 검토하고 《날로 장성하는 육류, 우유,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모직물과 피혁 제품의 원료를 급속히 증가시키며 농업 증산에 요구되는 자급 비료를 다량 생산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더욱 신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결정서)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2—3년 내에 축산업 발전에서 달성하여야 할 투쟁 목표를 제시하고 축산물 생산의 토대 구축과 생산성 제고 문제, 공고한 사료 기지 조성 문제, 선진 사양 관리 기술의 도입 등 축산업 발전에서 근본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김 일성 동지는 금년 초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에서 한 결론에서 생활이 향상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축산물에 대한 비상히 높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였으며 최근 함북도 당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축산을 대담하게 하여야 하며 소극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억지에 못이겨 겨우 하는 동무들이 있는데 나는 하면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왜 오늘 이 문제가 이처럼 계속 절실하게 강조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축산업은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고립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농산업 기타 일련의 공업 부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축산업의 발전은 농산업에 대하여 사료의 공급을 요구하며 공업에 대하여서는 축산업의 기계화를 위한 각종 기계 제품들을 생산 공급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에 농산업은 축산업에 대하여 자급 비료, 역축 등의 공급을 요구하며 모방직 공업, 피혁 공업, 육류, 우락 가공 공업은 원료 공급을 축산업에 요구한다.

이 모든 것은 축산업과 농산업, 축산업과 공업이 호상 상대방의 발전을 자기 발전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 나라 농민들이 기술 혁명을 적극 추진시키고 집약 농법에 기초하여 알곡 500만 톤 이상이란 전례없는 다수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에서 일대 고조가 일어 나고 있는 오늘 비료와 축력에 대한 요구는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물론 우리 공업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는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화학 비료, 현대적 농기계 및 운수 수단들의 공급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 비료는 자급 비료와 옳게 배합될 때에라야만 농산물 증산에서 높은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급 비료는 농업 증산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구비는 자급 비료 중에서도 으뜸가는 것이며 그의 다량 시비는 토양의 비옥도를 높임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경공업은 금년에 인구 1인당 20메터의 천을 짜 낼 것이며 수년 내에 그것은 50메터에까지 달하게 될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식료 가공 공업과 일용 필수품 생산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축산업의 더욱 급속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나라 축산업은 이 부문들에 대한 원료 공급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가일층 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이러한 국면을 철저히 타개하여야 한다.

더우기 축산업의 발전은 오늘 인민의 생활상 수요를 보다 훌륭히 충족시킴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과거 오래 동안 봉건 통치 계급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하에서 혹심한 착취를 받아 비참하게 살아 온 우리 인민은 기와집을 쓰고 살며 이밥에 고기국을 먹는 생활을 부러워하였으며 그렇게 살기를 꿈꾸어 왔다. 그러나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 오늘 우리 인민은 능히 그러한 생활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정책을 받들고 투쟁한 결과 짧은 기간 내에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인민들은 축산물을 더욱 많이 공급하여 줄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만 하여도 40%나 임금이 인상되여 수입이 급격히 증대된 근로자들에 대한 육류의 공급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남만 못지 않게 잘 살기 위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긴장된 로력 투쟁에 동원되고 있는 근로자들이 고기와 우유 계란 등을 더 많이 요구하며 고급 직물과 일용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근로자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 요구를 해결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발전은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더 많은 육류, 우유, 계란 등을 공급하면서 농업 협동 조합과 조합원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축산품을 원료로 하는 각종 공업 제품의 생산을 증대시킴으로써 전체 인민의 생활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결국 우리 인민은 오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멀지 않아 공산주의의 문어구에 들어 서게 될 설계도를 펼쳐 들고 투쟁하고 있는데 축산물에 대한 그들의 소비 수준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우 낮은 형편에 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결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상술한 모든 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이 없이는 우리의 전진 운동을 더욱 성과적인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듯 현 시기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극히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도 가지고 있다.

자연적 조건으로 볼 때 우리 나라에는 초목이 무성한 산야가 많으며 평탄한 고원과 수많은 분지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적당한 지대가 얼마든지 있다.

우리 나라에는 질 좋은 자연 사료가 풍부하며 사료 작물 재배 적지도 많다. 대소 하천은 가축을 위한 훌륭한 급수 원천으로 되고 있으며 호수들은 오리 기타 가금 사육에 광범히 리용될 수 있다.

당은 일찍부터 농업 협동 조합들이 이 유리한 자연 경제적 조건에 적응하게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하여 한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특히 김 일성 동지는 산지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풀과 고기를 바꾸라》고 강조하여 왔으며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리용하고 바다

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라고 교시하여 왔다.

산을 리용하라는 것은 목축업을 비롯한 각종 부업들을 발전시켜 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어 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평남도 신양군, 황북도 신평군을 비롯한 적지 않은 시, 군들에서 당의 이 방침을 관철시켜 좋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모든 유리한 자연 조건들을 충분히 리용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사회적 조건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제도, 특히 농업 협동 조합 제도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선진적 사양 관리 방법과 기술을 도입하여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높은 속도와 큰 규모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다.

만일 우리의 국영 농목장들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축산업을 실속있게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능히 축산업의 현 락후성을 퇴치하고 급속히 추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오늘 우리 나라에는 축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과거에 비할 바 없이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였다.

농업 협동 조합들이 큰 규모로 통합되였으며 축산업 발전의 기본 조건으로 되는 사료 기지가 더욱 공고화되고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도 더욱 강화되였다.

지난 시기 알곡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축산업에 대한 알곡 사료 공급에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축산업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옥수수 재배 면적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관개 체계가 도입되였으며 토지 리용률 제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맥류를 많이 심고 그 후작으로 씰로쓰용 옥수수를 심어 막대한 사료를 얻을 수 있게 된 조건하에서 지금 우리는 상당한 량의 사료를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금년에 500만 톤 이상의 알곡 수확 목표가 달성된다면 우리 인민의 식량은 더욱 원만히 해결될 것이며 알곡 사료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튼튼한 종축 토대도 있으며 축산업을 기계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기계 제작 공업도 있다.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 축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견지에서 볼 때 비상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며 우리에게는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지어져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오직 일'군들이 높은 당성을 가지고 당의 축산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데 달려 있다.

축산물 생산의 급속한 증대를 위한 당의 방침은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 속도가 빠른 돼지 사육에 중점을 두면서 토끼, 닭, 오리, 소를 비롯한 가축, 가금을 더 많이 쳐서 고기, 우유, 계란을 풍부히 공급하는 데 있다.

물론 당이 제기한 방대한 목표를 앞당겨 실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농업 협동 조합원들과 축산 부문 일'군들은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작년 10월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가 있은지 불과 반년밖에 되지 않는 기간에 우리 나라 축산업의 토대는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공동 축산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였다.

금년 3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어미돼지의 100호당 확보 두수는 28두에 달하였으며 젖소의 100호당 확보 두수도 당 결정에 제기된 5두를 초과하였다.

우리 당이 새롭게 제기한, 조선소를 젖소로 전환시키며 그의 착유량을 증대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혁신적 성과들이 달성되고 있으며 가금 사육에서도 지금 종축 확보 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록 짧은 시일이기는하나 축산업 발전에서 달성한 이 성과들은 당이 제기한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당이 제시한 과업의 방대성과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유리한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당의 축산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는 아직 적지 않은 결함이 존재하며 축산업 발전에 대한 당의 요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응당한 수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중요하게 아직도 적지 않은 지도 일'군들이 알곡 생산 하나만을 중요시하는 농산 지도에서의 낡은 관점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나지 못한 데로부터 그들이 축산업을 차요시하며, 당의 축산 정책에 형식적, 소극적으로 대하며, 그를 관철함에 십중한 당적 주목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되여 있다.

적지 않은 지도 일'군들은 당의 축산 정책을 자기의 구체적 실정에 알맞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에서 혁명적 전개력이 부족한 결함들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업을 차요시하는 일'군들은 축산업 발전 문제를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들과의 련관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의 련관 밖에서 고립시켜 본다.

이런 일'군들은 농산업과 축산업의 발전 문제를 호상 의존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의 축산 정책을 옳게 받아 들이지 못하고 말로만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할 뿐 실제에 있어서는 그의 락후성을 계속 방임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는 함북도 인민 위원회의 이전 지도 일'군들과 같이 축산 적지에서까지도 축산업을 제쳐 놓고 되지도 않는 알곡 생산의 《발전》을 위하여서만 몰두하는 실례를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농산업은 농촌 경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니만큼 더 많은 로력을 들여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산업의 발전만이 축산 발전을 추동시키고 축산의 발전은 농산업 발전에 대하여 아무런 작용도 놀 수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고 방법은 맑스—레닌주의적 사고 방법, 우리 당이 요구하는 사고 방법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문제를 호상 련관 속에서 보지 못하는 지도 일'군들은 주관적으로는 축산업을 발전시킨다고 노력하면서도 사업의 어떤 일면에만 편중하는 경향을 발로시키고 있는바 례하면 자강도 랑림군의 일부 지도 일'군들과 같이 종축 확보 사업에만 몰두하고 축사 문제, 사료 문제, 기능공 양성 문제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물질 기술적 대책 강구를 극히 등한히 한 결과 종축은 해결되였으나 적지 않게 병들고 지어는 폐사케 하는 등 엄중한 결과를 초래케 하고 있다.

축산업 발전 문제를 당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차요시하는 일'군들은 당의 축산 정책에 형식적으로 대하면서 문제를 깊이 연구하지 않으며 다만 일반적 호소나 막연한 투쟁 구호를 강조함에 그치는 등 추상적 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지도 일'군들은 례하면 조선소를 젖소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떻게 유리하며 토끼, 닭, 오리 등의 사육이 어떤 유리성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하여 구체적인 경제적 타산을 통하여 설명하여 줄 대신에 《덮어 놓고 열닷냥'금》식으로 해야 한다고 내밀기만 하고 있다. 그리하여 함북도 명천군을 비롯한 일부 지방들에서는 지도 간부들이 내려 가면 젖을 짠다고 하고 올라 오면 또 밭갈이를 시키고 있으며 이곳 지도 일'군들 자신이 소의 확보 두수는 알고 있으나, 실속있게 젖을 짜는 소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

창성군 신벽 농업 협동 조합을 비롯한 적지 않은 조합 관리 간부들은 년말 확보 두수가 얼마이고 보유 두수는 얼마인데 그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얼마만한 사료가 요구되며 위생 방역에는 어떤 대책이 요구되며 축사, 어미돼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구체적 문제에 대하여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지어 농산업에서 파종과 같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종부 사업에 대하여서는 거의 무관심한 형편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곳 군 지도 일'군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 지도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지도가 축산 발전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고리들을 실질적으로 풀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당의 축산 정책에 형식적으로 대하는 일'군들은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하여 투쟁할 대신에 《로력 문제가 곤난하다》, 《사료 문제에 걸리고 있다》고 애로와 난관만을 먼저 내놓고 있다.

과거에 목축업의 기초가 대단히 미약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축산업을 단시일 내에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난관이 전혀 없을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난관이 있고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옳게 타개하고 빨리 전진하는가 하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의 애로는 《…정전 직후에 우리가 재'더미 우에서 벽돌 한 장, 세멘트 한 그람, 쇠쪼박 하나 없는 형편에서 적수 공권으로 공장들과 주택들을 복구하던 그 때에 비한다면 훨씬 헐할 것이고 그를 극복하는 것도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농촌 경리의 당면한 과업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오직 당의 로선에 철저히 의거하며 당 정책에 끝까지 충실하게 투쟁한다면 우리 앞에는 극복 못할 난관이 없다.

당은 이미 로력 문제, 사료 문제 해결의 기본 방도도 명시하였다.

당은 셀로쓰와 건초를 가축 사료의 기본으로 하고 모든 경사지, 폐경지, 야산들을 사료전으로 전환시키며 목초를 심어 방목지를 더욱 확장할 것과 축산업을 기계화하여 로력을 절약하며 책임성이 강한 핵심들로 축산 작업반을 튼튼히 꾸릴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당의 축산 정책에 형식적으로 대하는 일'군들은 이 모든 것을 충실히 실천하지 않고 있다.

평북도 내 일부 시, 군 지도 일'군들과 같이 옥수수'대를 밭에다 세워 놓고 말리우면서도 사료가 없다고 하며 황해남도의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와 같이 축산 작업반에는 몸이 약한 사람, 늙은이, 지어 불구자들까지 모아 놓고 기계화할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로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일'군들이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 볼 때 사료전 조성은 4월 말 현재 12%밖에 되지 않았으며 축산 작업반원들에게 기술을 배워 주는 문제, 축사를 해결하여 주고 수의 방역 대책을 세워 주는 등 실제적 지도 사업은 아직 극히 불만족스러운 형편이다.

오늘 축산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술한 결함들을 시정하고 급속한 개선을 가져 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당 정책에 대한 형식적, 소극적 태도를 청산하고 당의 축산 정책 관철에서 당성을 고수하는 문제이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바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무엇보다도 지도 일'군들 자신이 축산업 발전에 대한 당의 정책과 의도를 똑똑히 인식하여야 하며 농업 협동 조합원들과 전체 군중들에게 그를 철저히 침투시켜 그들의 파악 과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지도 일'군들이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면 당의 축산 정책을 보다 심도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게 될 것이며 지도에서 구체성과 확신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가축을 직접 기르는 사람들이 당의 의도를 더 잘 알게 되고 축산업의 유리성을 알게 될 때 가축을 더 많이 기르기 위한 그들의 의욕과 적극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방 당 및 정권 기관의 책임적 지도 일'군들이 축산업을 직접 틀어 쥐고 지도를 심화시키는 문제이다.

공동 축산업의 규모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오늘 옳은 지도를 보장하는 것은 특히 절실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그런데 선조 때부터 하여 온 농산업과는 달라서 공동 축산업에 대한 지도는 아직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생소한 일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지도 일'군들이 사료 생산, 조직, 가축 방역 사업을 비롯하여 축산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도 일'군들은 축산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기능공 양성 문제, 로력 문제, 사료 문제, 종축 문제로부터 축산 시설, 축산업의 기계화, 방역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사회주의 경리에 적응하게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해결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 당이 강조하고 있는 사업 방법 개선 문제는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지도 일'군들은 축산업을 왜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대중에게 해설 설복하여 그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나 하고 문건이나 보느라고 사무실에 앉아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을 실지 사업 과정에서 가르쳐 주면서 자신도 배우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지도 일'군들이 연설이나 하고 강조하는 것만으로써는 일이 잘 될 수 없다. 조급해 하지 말고 농업 협동 조합들을 하나하나 찾아 다니면서 축산 발전에서 제기되는 당면 과업에 대하여서는 물론 그들에게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배워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시기 우리 당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축산업 발전 문제는 오직 일'군들이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방법을 개선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각급 당, 정권 기관 지도 일'군들과 농촌 경리 부문 지도 일'군들, 전체 농업 협동 조합원들과 국영 농목장, 종축장 일'군들은 높은 당성을 발휘하여 당의 축산 정책을 관철시킴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영양가 높은 육류, 우유, 계란을 더욱 풍족하게 공급하도록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도 일'군들은 국영 농목장들에 대한 지도를 선행시키면서 당이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축산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도록 경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종축장들에서 육류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데 대한 당의 정책을 옳게 실천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당 단체들은 가축, 가금수가 증대됨에 비추어 사료전 조성 문제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고 소요 사료를 세밀히 검토하고 그의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지방 자재로써 토끼우리, 오리사, 계사 기타 각종 생산적 건설을 선행시키며, 각종 기술 연구 크루쇼크 사업을 강화하고 강습 기타 방법을 통하여 일'군들의 기능 수준을 제고시키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축 위생 방역 사업에서 질서와 규률을 확립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 사업이다. 그러므로 방역 규률을 엄격하게 지키고 위생 문화 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김 일성, 《함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또한 종축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현 조건하에서 당 단체들은 축산에 대한 지도의 중심을 고기를 많이 내도록 함에 돌려야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오늘 우리 당은 알곡 사료를 먹지 않으면서도 번식률이 빠르며 기르기 쉬운 토끼를 비롯하여 닭, 오리의 사육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당이 제기한 바와 같이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500마리의 토끼를 가지고 파동한다면 1년에 100톤 이상의 고기를 낼 수 있으며 전국 3,880 여 개의 조합에서 실로 38만 톤의 고기와 토끼 가죽에 의한 수 많은 필수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들과 농촌 경리 부문 지도 일'군들은 육류 문제 해결에서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이 고리를 튼튼히 잡고 양돈로대를 계속 공고히 하는 한편 특히 작은 가축과 가금을 홀시하는 경향과 투쟁하면서 우리 나라의 어디를 가나 토끼, 닭, 오리가 우글거리도록 국영 농목장과 농업 협동 조합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 특히 젖소의 착유량을 높이기 위하여 그의 사양 관리를 개선하도록 당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

각급 당 단체 지도 일'군들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소극성, 보수성, 형식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당의 축산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 동원시켜야 할 것이다.

항일 빨찌산의 무산 지구 전투 승리 20주년

김 을 천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속에서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령솔하에서 조직 전개된 항일 빨찌산의 무산 지구 전투 승리 20주년을 맞이한다.

1939년 5월 22—23일에 있은 무산 지구 전투는 김 일성 동지를 위수로 한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격멸 소탕하기 위한 장기간에 걸친 무장 투쟁의 한 부분으로서 조직 전개되였으며 또한 조선에서의 혁명 투쟁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국내 작전의 한 부분으로서 진행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그의 초시기부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직접 국내에 진출하여 국내에서의 혁명 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항일 빨찌산이 동만 일대의 혁명 근거지에 지탱하면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던 초기에 있어서는 주로 소부대를 함경북도의 경원, 온성, 무산 등지에 파견하여 적들의 주재소, 세관 등을 습격하여 무장을 획득하는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산 광산 로동자들 속에서와 기타 지방 인민 대중 속에서 정치 공작을 조직 진행하여 국내 인민들에게 거대한 정치적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북부 국경 지대의 조선 청년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만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항일 빨찌산에 찾아가 입대하였으며 인민들은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면서 수 많은 군자금과 원호 물자들을 빨찌산에 보냈다.

그 후 조선 인민 혁명군의 국내 진출은 항일 유격대의 력량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그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여 갔으며 일제의 배후를 타격하는 국내 작전의 정치 군사적 의의도 커졌다.

이에 있어서 1936년 2월 녕안현 남호두 소자지하에서 소집되였던 당, 군정 간부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기한 조선 혁명 발전의 전반적인 전략 전술적 방침은 조선 인민 혁명군의 국내 진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조 중 인민의 공동의 원쑤인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의 과업을 수행할 것과 그러기 위하여 다른 전략적 방침과 더불어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이 조선 북부 국경 지대에로 진출하여야 한다는 명철한 로선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에 근거하여 인민 혁명군 부대들은 백두산 기슭을 중심으로 한 장백 근거지를 창설하였으며 국내 각처에는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을 비롯한 수 많은 조국 광복회 조직들이 광범히 포치되였고 조선 인민 혁명군의 국내 진출은 보다 대규모적으로 진행되였으며 국내 혁명 운동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도 강화되여 갔다. 1937년 6월 4일에 있은 보천보 전투, 그를 전 후한 시기에 앙양된 국내 혁명 운동, 그 후의 무산 지구 전투 등은 바로 이 방침이 훌륭히 실현되여 가고 있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중 일 전쟁을 개시한 후 조선에 대한 파쑈적 략탈과 폭압을 일층 강화하였다. 놈들은 보천보 전투 이후 앙양되였던 국내 혁명 운동을 혹심히 탄압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조선 인민의 전도에는 또 다시 암운이 떠돌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러한 시기에 조선 인민 혁명군의 대부대를 친솔하고 다시 한 번 국내 무산 지구에 진출하여 조선 인민에게 해방에 대한 굳은 신심을 불어 넣어 주었고 반일 투쟁을 강력히 고무 추동하였다.

※ ※

중일 전쟁 개시 후 일제는 중국 관내에 수 많은 사단들을 투입하여 중국의 방대한 부분의 령토를 강점하였으며 전선을 더욱 확대하려고 광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개시된 지 1년 남짓한 1938년 10월경에 이르러서는 벌써 전선을 더 확대할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따라서 전쟁은 상치 계단에 들어 섰다. 그것은 일제가 중국 관내에서 중국 공산당이 령도한 8로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으며 동북 및 조선 국경 일대에서 활동하던 항일 빨찌산들의 강력한 유격전과 그에 호응하여 궐기한 조 중 인민들의 반일 투쟁에 의하여 자기들의 후방이 엄중한 위기에 부닥쳤기 때문이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후방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고 계속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들의 후방에서 전개된 조 중 량국 인민들의 항일 무장 투쟁을 진압하며 무고한 인민들을 대중적으로 학살함으로써 인민들의 반일 기세를 진압하려는 길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일제는 1938년 가을부터 10여만 명의 대병력을 동북 일대, 특히는 조선 인민 혁명군이 주로 활동하던 남만 및 조만 국경 일대에 투입하여 소위 대대적인 《토벌》을 감행하였다. 적들은 수 많은 병력을 요소 요소에 배치하여 지역별 담당 《토벌》 정책과 대병력으로 인민 혁명군을 계속 추격하는 《진두기 전술》을 써 가면서 인민 혁명군 부대들을 격멸하려고 광분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놈들은 벌써부터 조선에 정규 군대 3개 사단을 주둔시키고 경찰 테로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각종 악랄한 파쑈적 악법들을 조작 실시하여 공산주의 운동을 위시한 사소한 반일 운동이라도 여지없이 탄압하였으며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938년에는 《장고봉》 사건을 도발하여 쏘련 령토를 침공하였으며 이 도발 행위가 실패된 후에도 계속 쏘련 령토를 침공할 야욕을 실현하려고 발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조선 인민 혁명군 앞에는 일제의 후방 깊이에서 적들에게 대타격을 줌으로써 적들의 대병력 동원을 견제하며 조선 인민들의 반일 애국 사상과 혁명 승리에 대한 신심을 제고하며 파괴된 혁명 조직들을 복구 정리할 과업이 제기되였었다.

1938년 11월 몽강현에서 소집된 당, 군정 간부 회의와 그 후 1939년 4월 장백현 북대정자에서 열린 인민 혁명군 제 2 방면군 당, 군정 간부 회의들에서는 조성된 정세를 토의하고 당시 조선 인민 혁명군이 해결하여야 할 전략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몽강현에서 열린 당, 군정 간부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적들의 소위 대규모적 《소탕전》에 대응하여 단위당 무력 대비에서 아군의 우월성을 보장하면서 대부대로 성시 습격전을 조직하여 적을 대량 소멸하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소부대들의 활동을 강화하여 대중을 반일 투쟁에 조직 동원하는 정치 공작을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회의는 인민 혁명군을 수개 방면군으로 편성하고 조선 국내와 동북 일대의 광활한 지역에로 진출케 하며 각 방면군 별로 일정한 활동 지역을 담당케 하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명시된 전략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김 일성 동지가 친히 인솔한 제 2 방면군 부대들은 적들의 동기 《토벌》을 격파하면서 100여일 간의 간고한 행군 끝에 1939년 4월 초에 장백현 북대정자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당, 군정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지난 겨울 인민 혁명군 부대들의 활동 정형을 분석 총화하였으며 인민 혁명군 부대에게 금후 군사 정치적 활동의 구체적 방향을 명시하였다. 즉 백두산 서남, 서북 일대에 집중된 적의 병력을 분산시켜 각개 격파하고 백두산 동남 및 동북부의 유격 활동 구역을

복구 확장하며 국내에 진군하여 적들에게 대타격을 주며 정치 공작을 강화하여 암담한 처지에 있는 국내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해방에 대한 서광을 비쳐 주며 파괴된 지방 조직들을 복구 정비할 것을 당면한 중요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침에 근거하여 인민 혁명군 제 2 방면군 부대들은 강력한 춘기 공세로 넘어가 세계 로동 계급의 전투적 명절인 5. 1절을 높은 전투적 성과로 맞이하며 국내 진출의 물질적 및 사상적 준비를 갖추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39년 4월에 있은 장백현 가재수, 구가점 및 15도구 전투들과 5월 3일에 있은 반절구 전투 등은 그의 대표적인 전투들이였다. 이 전투들을 통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은 장백현 일대의 적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였으며 인민들에게 유격대의 력량을 시위하였고 식량, 피복 등을 해결하여 국내 진공 작전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와 같이 국경 연선에서 적들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국내 진공 작전을 위하여 정찰 성원들과 인민들을 통하여 국내 국경선 일대의 적정을 정확히 정찰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1939년 5월 15일 김 일성 동지의 지휘하에 조선 인민 혁명군 주력인 제 2 방면군 산하 수백명의 대원들은 조선을 향하여 회싸즈거우를 출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16일 장백현 24도구 부근에 도착하여 리 운신, 최 인덕, 김 성국 등 수명의 정찰 성원들을 파견하여 다시 한 번 적정을 세밀하게 정찰한 후 5월 18일 오전에 압록강과 소백수 물이 합수진 곳으로 부대를 도강케 하였다.

그립던 조국땅에 들어 선 유격대원들은 소백수의 맑은 물'가에 활짝 핀 진달래꽃 속에 저마다 얼굴을 파묻었고 꽃 향기를 맡았다. 그리고 대원들은 아름다운 우리 강토를 짓밟고 있는 강도 일제를 무찌를 멸적의 기세로 행군하여 청봉산 기슭에 이르러 숙영하였다.

이 곳에서 정치 공작원들은 나무 껍질을 벗기고 구호를 써서 국내 인민들을 반일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그들이 써놓은 구호: 《일본 파씨스트 군벌을 때려 부시자》,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동북 항일 련군에 참가하여 싸우자, 조선 청년들은 속히 달려 나와서 항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 《일어 나라 단결하라 전체 로력 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조선 형제들은 일본놈의 노예적 병사에 다니지 말고 자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나서자》, 《조 중 민족은 련합하여 일어나 공동의 적 일본놈들을 타도하자. 항일 대전 승리 만세》, 《무산 계급과 전 세계 피압박 민족은 단결하여 일어 나라》 등은 당시 조선 인민 혁명군과 국내 인민들의 당면한 투쟁 구호였다.

5월 19일 아침 여러 개의 소부대들은 근방 마을과 목재 작업소들에 가서 바로 전기한 구호의 정신을 선전하였는바 8련대 정치 위원인 김 일 동지는 목재 작업장을 습격하고 로동자들 속에서 정치 선동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날 부대는 벼개봉에서 숙영하고 다음 날 행군을 개시하여 허항령 서쪽 삼지연을 거쳐 갑무(甲茂) 도로 100 여리 길을 백주에 행군하였다.

부대는 밤 12시경에 무봉 부근에서 휴식하고 21일에는 감쪽같이 두만강을 건너 중국땅 장산령에서 숙영하였다. 이때 중국땅에 건너선 것은 아군의 행동 방향을 주시하고 있던 적들을 혼란시키기 위하여서였다.

장산령에서 하루 휴식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전 부대에 세밀한 전투 준비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당, 군정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무산 지구에로의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전투 계획을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매 부대들에 전투 임무를 하달하였으며 지휘관 및 정치일'군들에게 국내 작전을 앞두고 전투원들 속에서 사상 동원 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작전 계획은 그 규모로 보아 대단히 컸던 것이다.

부대가 진출할 지점은 무산군 로은산구 일대였는바 로은산구는 유곡, 삼장을 련결하는 적들의 한 개 요충지였으며 일본 독점 자본인 《북선 제지》 계렬의 목재 작업소들과 소홍단수를 리용하는 류벌 중심지였다. 따라서 이 고장에는 빈곤한 목재 로동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지구에 진출함으로써 적들의 국경선 후방을 타격 교란시키며 국내 로동 계급들과 전체 인민들을 반일 투쟁에로 고무 추동할 수 있는 것이였다.

그러나 로은산구에로의 진출은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로은산구로 진출하자면 두만강 국경선에서 적의 종심으로 70—80리 가량되는 개활 지대를 돌파하여야 하였으며 이 개활 지대에서 아군 부대의 진군 및 철퇴를 보장하기 위한 방차대의 조직과 행동의 기동성 및 명활성이 요구되는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직접 정찰 성원들과 지방 주민들을 통하여 국경 일대의 군사 지리적 실정과 적들의 국경 수비 정형을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윽고 인민 혁명군 부대는 김 일성 동지가 작성한 작전 계획에 의하여 무산 지구를 향하여 장산령을 출발하였다. 이리하여 김 일성 동지는 행군 도중 수개소에 방차대를 파견하여 홍암, 혜산 방향으로부터의 적을 방어케 하였다.

주력 부대는 수십리나 되는 대홍단'벌 개활지대를 돌파하여 국사당 부근에 이르렀는바 이곳에서 김 일성 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김 일 동지는 8련대를 인솔하고 신사동쪽으로 진출하여 사동 방면의 적을 소멸하고 로동자들 속에서 정치 선동 사업을 진행하며 주력 부대의 군사 정치적 활동을 엄호하게 되였으며 주력 부대는 계속 김 일성 동지의 친솔하에 로은산구로 향하였다.

부대는 5월 22일 오후 7시에 로은산구에 이르렀다.

로은산구 웃 두지바위 부락 주민 가옥에 김 일성 동지는 지휘부를 설정하고 전투를 지휘하였다.

제 7련대장 오 중흡 동지가 지휘하는 한 개 부대는 로은산구 신개척 부락에 진출하여 로동자들의 협조 밑에 《북선 제지》 목재 작업소를 습격하였다. 경찰놈들은 혼비백산하여 도주하였다.

이리하여 한 시간 이내에 웃 두지바위로부터 신개척에 이르는 15리 어간의 로은산구를 해방하였다.

유격대원들은 목재 작업소 창고 내에 산적된 식량과 천을 인민들에게 분배하였다.

로은산구 내 전체 인민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조선 독립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를 높이 웨쳤으며 인민 혁명군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정치 공작원들을 마을마다에 파견하여 정치 선동 사업을 진행케 하는 한편 몸소 웃 두지바위 부락 인민들과 장시간 담화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담화에서 일본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며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은 기필코 승리한다는 확고한 전망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의 기본 내용들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서 조선 인민들은 이 장엄한 민족 해방 투쟁에 모두 한사람같이 일떠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망국노의 생활에 억눌리고 천대 받던 인민들은 김 일성 동지의 미더운 이야기에 감격되여 저마다 김 일성 동지께서 밝혀 준 길을 따라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궐기할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정치 공작원들과 다른 대원들도 마을 곳곳에서 인민들에게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과 3.1 월간의 내용들을 쉽게 해설하면서 반일 투쟁에 궐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로은산구 진출에서 거대한 승리를 거둔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는 이윽고 밤 11시경에 인민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그곳을 철수하였다.

한편 이때 김 일 동지의 지휘하에 8련대는 신사동에 이르러 적을 습격 및 견제하

면서 로은산구 주력 부대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김 일 동지는 로동자들 속에 조국의 광복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넣어 주었다. 그리고 8련대는 철수하면서 적 토벌대와 조우하여 10 여명을 살상하였으며 23일 새벽에는 카소링카로 추격해 온 일제 경찰대 놈들을 림철 종점에서 격퇴한 후 예정 지점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아직 신개척과 아태'두지바위에 파견된 부대는 집결 지점인 국사당앞고지에 도착되지 못하였었다. 김 일성 동지는 집결 지점에 도착한 부대들에게 전투준비를 갖추게 하고 후속 부대를 대기케 하였다.

23일 아침 8시경 적 국경 수비대와 창평, 와꾸이 경찰대 수백명이 중무기의 엄호하에 대홍단 벌판에 출현하였다. 이때 바로 오 중흡 련대장이 지휘한 신개척 진격 부대가 대홍단 벌판에 당도하여 적과 조우하게 되였다. 적들은 아군 부대를 먼저 발견하였던 것만큼 맹렬한 사격으로 대항하였다. 이 때 정면 고지에서 정황을 보고 있던 김 일성 동지는 대기하고 있던 전 부대에 사격 명령을 내렸다. 근 10여 정에 달하는 경기관총과 수백정의 보총 사격에 적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한편 김 일성 동지의 명령하에 경위 중대장 오 백룡 동지가 지휘한 일부 부대는 전투장의 동쪽을 우회하여 적을 익측으로부터 타격하였다. 적들은 하는 수 없이 사동과 유곡 방향으로 패주하였다. 때마침 유곡 방향으로부터는 적의 응원대가 오고 있었는데 적들은 저희들끼리 맞다드러 격전하는 추태를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아군 부대는 대홍단 벌에서 적을 대량 소멸하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 올기강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적들은 자신이 혼비백산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0 여명 김 일성 비단과 함북 경관대와 격전, 응원대 급파 포위진, 23일 오전 2시 반 함경북도 무산군 대홍단 하류 10리 되는 지점에서 함경북도 경관대는 약 200명의 김 일성파 비적과 만나게 되여 목하 교전 중이며 한편 몽도, 증산과 대노은산 중간에서도 목하 격전 중으로 함북도 경찰부에서는 각지에서 응원대를 급파하였다…》(《동아 일보》, 1939년 5월 24일부).

이리하여 김 일성 동지의 친솔하에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는 무산 지구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고 두만강을 건너 그 후 올기강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 ✻

김 일성 동지의 친솔하에 조선 인민 혁명군의 무산 지구 진출과 대홍단 일대에서의 전투 승리는 1930년대 말 이후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의 무산 지구 진출과 대홍단 일대에서의 전투 승리는 김 일성 동지의 령활한 령군 예술과 조선 인민 혁명군의 전투적 위력을 다시 한 번 국내외에 시위하였으며 중일 전쟁을 도발한 후 새로운 전쟁 확대를 위하여 광분하고 있던 일제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인민 혁명군은 국내 진출의 전략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들의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교통, 통신망이 발달한 국내에 진군하여 1주일 간이나 활동하였으며 국경에서 70—80리에까지 진출하여 대규모적인 대홍단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로써 적들에게 대타격을 줌으로써 조선 인민 혁명군의 위력의 강대성을 시위하였으며 불굴의 투쟁 정신과 애국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무산 지구 전투는 1937년 6월 4일 보천보에 높이 오른 해방의 홰'불을 들고 줄기차게 진행되던 국내 로동 운동과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이 일제에 의하여 야수적으로 탄압 당하고 수 많은 혁명 조직들이 파괴되였거나 지하 깊이 들어간 암담한 시기에 진행되여 인민들에게 해방에 대한 굳은 신심을 제고하였으며 그들의 반일 투쟁을 힘차게 고무 추동하였다.

사실 이 시기는 조선 인민의 력사에서 민족적인 우수한 모든 것들이 말살되고 절망적인

비운이 머리 우를 뒤덮은 그러한 암담한 시기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조선 인민 혁명군은 또 다시 국내 무산 지구에 진출하여 해방의 불'길을 높이 들음으로써 국내 인민들의 반일 투쟁을 더 한층 앙양시켰다. 이리하여 국내 인민들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된 후인 어려운 시기에도 국내 각처에서 각이한 투쟁 형태로 반일 투쟁을 계속 전개하게 되였다.

적들의 문헌 자료에 의하더라도 1942년에 조국 광복회 지하 조직을 비롯한 각종 반일 단체들은 무려 183개에 달하였었다. 그리고 1943년 청진 일철의 혁명적 로동자들은 일제의 가혹한 파쑈적 폭압을 반대하여 대규모적인 폭동을 계획하였으며 태업과 정치적 선동 삐라들을 살포하는 등 반일 투쟁을 힘있게 조직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군수 공장을 비롯한 각 공장 로동자들은 대중적 태업을 단행하였으며 공장을 폭발하거나 소각하는 등 과감한 투쟁도 전개하였다. 그리고 각처에서 로동자들과 농민, 청년 학생들은 김 일성 동지 지휘하의 조선 인민 혁명군과의 련계를 맺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였다.

또한 무산 지구 전투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중일 전선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으면서 1939년 5월 《노몽한 사건》을 도발하여 몽고 령토를 침공하고 나아가서 쏘련 령토를 침공하려 한 환경에서 그의 배후에서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무장으로써 직접 쏘베트 동맹을 옹호하였으며 몽고 인민 공화국과 형제적 중국 인민의 반일 무장 투쟁을 고무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발양한 전투였다.

무산 지구 전투를 통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이 발휘한 불멸의 애국주의와 혁명 정신은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의 하나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오늘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들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혁명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 로동당은 항일 빨찌산의 사상 체계로 무장하였으며 항일 빨찌산의 혁명적 사업 전통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100 여만의 당원을 가진 불패의 대오로 장성 강화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빨찌산 영웅들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공산주의적 미래를 위하여 피흘려 싸운 그 념원을 오늘 우리의 현실 생활에 훌륭히 실현시키면서 있다.

오늘 조선 인민들은 우리 조국 력사에 찬연히 빛나는 무산 지구 전투 승리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확립한 빛나는 혁명 전통을 더욱 철저하게 계승 발전시키면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위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킬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남조선에서 류포되고 있는 반동 문학

리 상 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오늘 남조선 현실을 더욱 무법, 불법 나아가서는 말법(末法)의 암흑 천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생지옥으로 화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남조선의 어떤 대학 교수는 《투신, 음독, 권총 발사 등으로 제각기 자기 취미에 따라 황천행을 택한다》고 개탄하고 있으며 어떤 시인은 《지폐가 락엽처럼 얼어 붙은 검은 손과 목숨의 애걸》을 통곡하면서 《낯선 입김을 마시며 바람같이 여기를 스쳐 나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하고 절망하고 있다.

이처럼 숨막히는 현실에서 《아아! 때아닌 소나기라도 서리여 왔으면》 하고 무엇인가 갈망하는 시인도 있으며 《황폐한 폐허에 폭풍이라도 한 번 때려라!》하고 소리 높이 웨치는 사람도 있다.

확실히 생지옥으로 화한 황폐한 땅 우에서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폭풍과 소나기를 갈망하듯이 새로운 생활을 요구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이제 더는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였으며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학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있다.

날로 높아가는 남반부 인민들의 각성은 문학 예술 분야에도 반영되고 있는바 그들은 부패 타락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배격하며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는 참다운 민족 문화의 수립을 더욱 강경히 요구하여 나서고 있다.

남반부 인민들을 자기들의 항구적인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발광하고 있는 미제와 그 주구 리 승만 역도들은 날로 장성하여 가는 남반부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참된 생활을 찾으려는 그들의 지향을 꺾기 위하여 반동적 각종 문학 조류를 류포시키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데로부터 출발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남반부 인민들을 허무와 색정의 진창 속으로 몰아 넣고 있으며 세기말적인 쟈즈와 맘보 음악으로 악취 풍기는 양키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실존주의 반동 사상의 《총아》인 허무주의와 색정주의 및 전쟁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반동적 자연주의 문학의 독소를 퍼뜨리는 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과 진리, 과학과 리성을 부인하고 인간의 무능력을 설교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미제와 리 승만 역도가 강요하는 인민의 노예화와 굴종을 합리화하고 남조선 인민의 계급 의식과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악독한 도구의 하나로 되기 때문이다.

지금 남조선 반동 문단에서 가장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자연주의 문학은 해방 후 남조선에서 정신적 및 도덕적 부패, 과학과 도덕에 대한 멸시, 인간 학대 등을 주장하는 실존주의 문학과 결탁되여 있다. 따라서 자연주의 문학은 민족 문화의 전통을 거부하며 생활을 허식하며 순수 감각과 《문화의 세계성》을 주장하는 꼬쓰모뽈리찌즘과 련결되여 있는 모더니즘 등과 합류되여 극히 반동적인 문학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에 있어서 부르조아 자연주의 문학은 1920년대 이후 《폐허》 《백조》 등 동인지를 중심으로 하여 전파되기 시작하였는바 이 문학 조류에 가담한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문학의 《초정치성》과 《초계급성》을 떠들면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불간섭》을 계속 주장하여 왔다.

이 반동적 자연주의 작가들은 과거 일제의 강도적 조선 식민지 략탈 정책을 합리화하면서 《황민화》 운동의 충실한 앞잡이로서 날뛰였으며 한편으로는 조선의 혁명적 문학 단체인 《카프》를 비방 중상하면서 프로레타리아 문학을 말살하기 위하여 발광하였다.

과거 일제에 충실히 복무하던 이 자연주의 작가들이 해방 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노예화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류포시키고 있는 반동적 문학 조류에 맞장구를 치고 나서게 된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오늘 남조선의 반동 작가들은 허무, 색정, 전쟁 선동 등 서로 제멋대로 지껄이고 있으나 그 내용은 례외없이 미제에 아부하는 반민족적, 반인민적 독소로 채워져 있다. 특히 자연주의 반동 작가들은 미제 침략 군대가 남조선에 영구 주둔할 것을 애걸하며 미군의 가증한 만행도 응당한 것으로 미화하고 있다. 여기에 자연주의 문학의 반동적 본질이 로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바 그것은 시대가 제기하는 과업으로부터, 현실 생활로부터, 사회적 모순과 계급 투쟁으로부터 남반부 인민들의 주의를 리탈시키며 문학을 미제에 복무하는 량순한 도구로, 남조선 지배층의 오락물로 전변시키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이 흉악한 반동 작가들은 남조선의 현실 생활과 진실을 외곡하면서 남조선 인민에 대한 미제의 죄악상의 폭로와 리 승만 역도들의 학정에 대한 인민의 항거의 정신을 반영한 량심적인 문학의 새 싹들을 압살함으로써 천추에 씻지 못할 민족적 죄행을 감행하고 있다.

※ ※

오늘 남조선에서 광범히 류포되고 있는 반동적 부르조아 자연주의 문학은 그 내용에 있어서 실존주의를 강요하고 있으며 꼬쓰모뽈리찌즘의 례찬과 전쟁 선동을 일삼고 있다.

실존주의 반동 문학 조류는 제 2차 세계 대전 후 서구라파에서 전쟁이 빚어낸 불안과 오뇌와 절망을 바탕으로 하여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실존주의 반동 문학가들과 작가들은 《전쟁이나 혁명에서 인간의 애국심 또는 영웅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한낮 헛된 것이며 력사 자체가 인간을 기만한 데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결국 《리득을 보고 있는 것은 력사이며 인간은 그곳에서 허무밖에 감득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실존주의 작가들은 인간의 생의 심저에 놓여 있는 그 허무성을 밝히며 나아가서 인간 존재의 퇴락상을 묘사하는 것을 문학 작품의 특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존주의 문학가의 대표자인 싸르트르는 《실존하는 것은 오직 현재 뿐이며 인간에게는 과거도 인연이 없으며 미래도 그것이 앞으로 닥쳐 오는 현재만으로써 실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실존주의 문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삶에 대한 허무와 인간에 대한 숙명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동적 실존주의 문학 조류는 미제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남조선에 전파되였는바 그것은 이미 전쟁전부터 고취되여 왔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정전 이후 시기에 급격히 머리를 들고 전염병처럼 만연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리유가 있다.

그것은 생활과 진실을 외곡하고 인류 력사에서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을 일체 부정하는 반동적 실존주의 문학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강화하며 그를 반대하는 인민의 계급 의식과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는 데 직접 복무하기 때문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발표되고 있는 작품의 많은 수효가 다 인간 증오와 허무주의에 기초한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러한 작품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대부분이 자살자가 아니면 정신병자들인바 그들에게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신뢰도 없으며 생활에 대한 진실도 리상도 없다. 다만 동물적 자극과 관능에서부터 오는 살인 행동과 자살에 대한 례찬이 있을 뿐이다.

이제 몇 개의 작품에서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권 태웅은 단편 소설 《인간 령토》에서 미국 해적 상인들의 채찍 밑에서 신음하는 부두 로동자들의 고역 살이를 묘사하고 있는바 이 작품의 주인공 기유는 로동자들과 함께 기아에 못 이겨 항 내에 정박하고 있는 미국 수송선에 적재하고 있는 《피엑쓰》 상자에서 물건을 절취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행동에 대하여 《그건 그건 죄가 아니다. 목숨을 걸고 일해 오는 절박한 로동에 대한 대'가를 우리 스스로가 지불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로동에서 쌀 한 되'박 값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말이냐, 그것은 무서운 착취다. 마음껏 훔쳐 내고 마음껏 뚜드려 마셔라》고 웨친다.

그리하여 500환이란 돈을 분배 받은 그는 낮에 작업하다 죽은 민호의 시체를 업고 눈이 깔린 밤'길을 걷는다. 주인공 기유는 길가던 도중에서 《양키》 감시병의 총에 맞아 죽은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발견한다. 그는 아버지의 시체를 그곳에 남겨 두고 실신한 사람처럼 다시 민호를 업고 설악의 산마루에 오른다. 그곳에서 기유는 민호의 시체를 낭떠러지 밑인 바다로 힘껏 떠밀쳐 버린다. 그리고는 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돈을 내여 바다에 뿌린다. 기유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만다.

이 소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가는 몇달씩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로동자들은 결국 살기 위하여 미국 해적 상인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아무런 안전 시설도 없는 극악한 로동 조건하에서 일하다가 매일과 같이 로동 재해로 죽어가는 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 처지와 남조선 인민을 마음대로 학살하는 미군의 만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가는 그 참을 수 없는 현실에서 눈을 어디로 돌리고 있는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 처지와 미군의 만행 등 인간 운명의 비극을 사회적 조건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실존하는 인간의 허무를 설교하며 삶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작가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허무한 것이며 현재 살고 있는 순간 그 부조리(不條理)한 현실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작가가 주장하는 부조리의 현실에 대한 반항 정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어떤 압제자에 대한 반항이거나 현실 모순에 대한 반항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 순간은 모르나 현재 자기 눈 앞에 벌러지고 있는 부조리의 현실을 감득하는 데 대한 항거이며 반항이란 것이다. 이것은 인간 자체가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삶에 대한 미련한 저항 의식을 가진 숙명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약자는 강자 앞에서 예속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남조선 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 처지와 미군의 만행을 응당한 것으로 간주하며 《렬등한 인간》은 그 현실에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바로 여기에 이 작가의 반동적 본질이 숨겨져 있다.

그것은 이 작가가 로동자들의 생활 처지와 미군의 만행을 묘사하면서도 그 실은 남조선에서 앙양되여 가고 있는 로동자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며 남반부 인민들을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완전한 노예로 만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이 작가가 《현재의 지옥은 결국 나의 왕국이다》라고 떠드는 실존주의자 싸르트르의 사상을 그대로 표방하고 나선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와 같은 반동적 사상은 손 창섭의 단편 《피해자》에서 더욱 로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40년의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 과부와 부부 관계를 맺은 병준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는바 그는 일종의 자기 결혼을 당한다. 그의 처는 전부의 딸과 아들을 동반했고 병준의 월급은 그대로 고스란이 장인에게 바쳐야 했다.

병준은 몇달째 월급을 주지 않고 감언 리설로 살살 달래기만 하는 자기의 사장을 원망하기 보다 자기를 내쫓지 않는다 하여 그를 더욱 존경하고 감사히 여긴다. 병준은 월급을 못받아 온 것을 죄스럽게 여기고 대문 밖에서 쪼그리고 자다가 급성 폐염에 걸려 눕게 된다. 그러나 태평스럽게 병상에 누워있을 체신이 못된다고 생각한 그는 몰래 빠져 나가 뒤'산 공동 묘지에 가서 그대로 쓰러지고 만다. 그렇게 해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그는 사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안해에게 용서를 구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가는 인간에 대하여 허무를 설교할 뿐만 아니라 로력의 대'가를 주지 않은 자본가《사장》에 대하여 감사를 느끼게 하고 있는바 이것은 최근 남조선에서 체불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로동자들의 투지를 마비시키며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자본가들의 교활한 행동을 미화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로력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필경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주인공이 무엇 때문에 사장에게 감사해야 한단 말인가? 그의 생명을 지탱해 가는 것이 무슨 《사장》의 공덕이란 말인가?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삶이란 미래에 대한 무관심과 인간에게 부여되여 있는 모든 것을 소진해 버리려는 무기력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보는 작가의 반동적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며 소위 잘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죽어야 한다는 허무하고도 무기력한 인간의 형상을 통하여 《렬등한 인간》의 운명을 설교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바로 이 작품의 반동적 본질은 《열등 인간》의 무기력을 선포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 침략자들의 종신 노예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데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 반동적 자연주의 작가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점은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삶에 대하여 허무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한편 발전하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저항을 떠들어 대는 그것이다.

그들이 떠드는 불안과 저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시기에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불가 타승의 위력을 가지게 된 데 대한 불안이며 날로 장성 강화되는 로동 운동을 반대하기 위한 저항이다.

반동적 자연주의 문학 조류에 가담하고 있는 문학가, 작가들은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 대하여 비방과 중상을 일삼고 있으며 남조선의 반동 작가들은 우리의 혁명적 민주 기지의 공고 발전에 대하여 절망적인 불안을 표시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리 승만 기세에 대하여 발광적으로 저항하여 나가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에 대하여 불안과 허무와 고독과 찰나의 향락을 설교하고 있는 자연주의 문학은 인간 도살에 광란하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게 사상적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리성과 량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수세기에 걸쳐 쌓아 올린 인민들의 참된 생활의 탑을 허물며 또 다시 인류를 무지 몽매한 동물적인 세계로 전락시키려는 그들의 반동적 책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반동적 실존주의 사상의 다른 측면인 관능적 색정 문학과 육체 로출증 문학의 본질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 ＊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색정주

의 문학을 류포시킴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을 무기력과 타락의 진창 속으로 밀어 넣고 있으며 그들의 계급 의식과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켜 남조선 인민들을 자기들의 예속물로 만들려고 발광하고 있다.

일찌기 일제에 충실히 복무한 박 종화가 오늘 미제의 극진한 비호를 받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는 벌써 1920년대부터 《밀실로 돌아 가라》는 시를 써서 색정 문학의 대표자로 등장하였다. 그의 충실한 졸도인 박 계주는 과거에 장편 《순애보》, 《애로력정》 등을 써서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 의식을 거세하여 보려고 발악하였다.

박 종화와 박 계주는 일제에 충실하듯이 8.15 해방후에는 역시 미제의 사환'군으로 등장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을 합리화하며 자기들의 아류를 양성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더우기 일시 문학의 《초정치성》과 《초계급성》을 운운하면서 순수 문학을 표방하고 나섰던 박 종화는 오늘에 와서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반민족적, 반인민적 파쑈 테로 통치를 례찬하면서 문학, 예술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데 전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자들은 악명 높은 반동 철학자 죤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에서 출발하는 반동적 색정 문학 조류를 류포시키고 있다. 죤 듀이는 《예술의 사상은 오락과 즉흥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정신적 《본질》은 생물적인 것에 있으며 예술의 본령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밝히는 데 있다고 떠벌렸다.

오늘 남조선 반동 문단에 류포되고 있는 색정 문학이 얼마나 추악한가를 몇 개의 작품들에서 실례로 들어 보자.

리 종환은 중편 소설 《인간보》에서 유리애라는 녀성의 육체 로출증을 찬양하면서 그로 인한 찰나의 향락과 인간의 허무를 례찬하고 있다.

색정 문학 조류에 물젖은 소위 신진 녀류 작가 한 말숙은 단편 《락조천》에서 로골적으로 색정을 설교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위 일류 무역 회사 사장의 처인 은옥은 딸 란희(미술 학교 학생)와 아들 웅을 가진 40대의 녀자로 아주 부유하게 산다. 그러나 그는 남편과 20여 년을 살면서도 하등의 애정을 못느낀다. 그는 그것으로 하여 쓸쓸하고 고독하다. 이 쓸쓸하고 고독한 것을 풀기 위하여 란희의 선생을 유혹하여 그와 더불어 동물적인 성생활을 시작한다. 그러자 은옥은 아이를 밴다. 진정 낳고 싶은 자식이나 락태를 시킬 것을 생각하여 그는 스스로 눈물을 흘린다. 순간 그에게는 다시금 외로움이 가슴을 엄습하고 있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주인공을 통하여 다름아닌 프로이드의 추종자들이 떠들고 있는 《삶의 본능》의 세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동물적 세계와 통하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 반동 문단에 범람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색정주의 문학은 일찌기 프로이드의 반동 철학에서 흘러 나온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거의 다 《정신 분석학》에 의거하듯이 프로이드 및 그의 류파들도 《정신 분석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예술을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보는 것이 프로이드의 반동 미학의 본질이다. 프로이드는 그의 《정신 분석학》에서 《아동들이 이성의 부모에 대한 련정》과 《동성(同性)의 부모에 대한 질투 증오의 태도》를 력설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으로 되는 륜리를 모독하며 그를 허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로이드의 아류인 라이오넬 트릴링은 《인간—수컷의 성적 행위》와 《주민들 사이에서의 동성애의 굉장한 보급》을 말하면서 마치 새로운 인간 관계를 발견한 듯이 떠들고 있다.

만일 색정주의 문학가들과 작가들이 인간을 규정하는 견해에 의한다면 이 곳에는 인간의 륜리도 사회 질서도 없고 문명과 진보도 없다. 그 곳에는 다만 추악한 동물적인 세계

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란 찰나의 향락의 련속이며 결국 허망한 것으로 되여 버리지 않을 수 없다.

죤 듀이 류의 실용주의자들은 인간은 다만 현재를 향락하며 살기 위하여서만 존재하는 것인만큼 이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수단 방법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미 제국주의 식인종의 철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상에서의 모든 향락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부모 자식간에도 동성 간에도 동물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서 예술은 지상에서 미달한 이 욕구들을 더욱 충족시키기 위한 한 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반동 작가들은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배반하고 미제의 앞에 더러운 교태를 부리며 배부른 자들의 비위에 아첨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체 애국적 인민들의 증오와 멸시를 받으면서 자기 죽음의 굴을 파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딸라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는 남조선 부르죠아 반동 작가들이 류포하고 있는 인간 증오, 불신임, 학대, 동물적인 멸시와 불안, 허무, 색정의 문학은 나아가서 《렬등 민족의 필연적인 패배》를 떠들면서 미제가 조종하는 전쟁 선동을 고취하는 극악한 반동 문학의 길에 떨어지고 있다.

* *

오늘 남조선에서의 리 승만 역도들은 《북진 통일》의 나팔을 계속 헛되이 불고 있으며 민족을 배반한 반동 작가들은 이에 호응하여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일찌기 전쟁 선동의 고취자들이였던 말사스주의자들은 20억에 달하는 지구상의 인구를 9억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떠들었으며 월리암 폭트는 《전쟁 철학》이란 론문에서 구라파,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지의 근로자들은 멸망하여 비료로 될 운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증스러운 언사를 썼다.

오늘 피에 굶주린 미제 침략자들은 《반공》 《반쏘》 선전을 목이 메도록 웨치고 있다. 남조선 반동 작가들도 이에 발을 맞추어 전쟁 선동에 날뛰고 있다. 정전 이후 미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로골적으로 전쟁을 선동하며 공산주의를 반대할 목적으로 자기들의 첩보 기관인 《아세아 재단》을 통하여 《자유 문학상》을 제정 실시하였다.

이에 당선된 렴 상섭의 《짖지 않는 개》, 김 동리의 《흥남 철수》등 십여편의 작품들은 모두 《반공》 및 전쟁 선동을 위한 반동적 자연주의 문학 작품들이다.

이러한 반동 작가들의 작품에는 전쟁 선동과 관련하여 《숭미 사상》을 고취하는 것으로 일관되여 있다.

그의 대표적 실례를 서 기원의 단편 소설 《딸라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김 우남은 딸라의 광신자이다. 그는 딸라로써 녀자를 마음대로 롱락하다가 마침내 그 녀자가 임신을 하게 되자 아이를 류산시켜 보자기에 싸서는 한강 얼음 구멍에다 넣고 저으기 만족감을 느끼는 귀축같은 인간이다.

이자는 딸라를 보고 《딸라》에서는 금시 고소한 참기름, 아니 빠다 냄새가 풍긴다》고 좋아 하면서 미국은 회충약을 구할 수 없으리만큼 깨끗한 나라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은 세계의 오물이 집결된 곳이며 세기말적인 악취가 풍기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남조선 인민들에게 더는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반동 작가의 웨침은 그 자체가 일종의 광태에 불과하다.

이와 발을 맞추어 반동 작가 김 장수는 단편 《반공 애국 포로》에서 우리 인민 군대와 내무서원을 중상 비방하면서 인민 정권에 대한 모독을 하고 있다.

또한 선우 휘는 단편 《보복》에서 쏘련 군대에 대한 허위적인 중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 맹수라는 자를 통하여 일시적 후퇴 시기에 북반부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인간 학살을 고취하였다. 실로 그의 행동

은 이름 그대로 맹수인 것이다.

박 거영은 《모르모트의 죽음》이란 시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미제의 원자 전쟁 도발만이 남북 통일의 유일한 길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이 길에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그들을 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고 있다.

남조선 반동 작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숭미 사상 및 전쟁 선동의 목적은 세계 제패를 망상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류포하고 있는 꼬쓰모뽈리찌즘에 복무하는 데 있다.

이 반동 작가들은 미제가 류포하는 소위 《범인간》이니 《세계인》이니 하는 꼬쓰모뽈리찌즘에 충실하면서 가증스럽게도 미국식 생활 양식과 미국식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여야 한다고 발광하고 있다.

이 파렴치한 반동 작가들은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의 고유한 민족 문화가 《렬등》하기에 어차피 미국식 문화 앞에 노예적으로 굴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은 민족 문화의 전통을 거부하며 그의 유산을 허무주의적으로 혹은 과소 평가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남조선의 반동 평론가들은 세계에 자랑할 우리 고전 작품들을 외곡 훼손하는 참을 수 없는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김 우종이와 같은 자는 춘향을 추잡한 기생으로 보며 리 도령을 떠다니는 잡인으로 론단함으로써 마치도 《새로운 것》을 찾아 낸듯이 떠벌리고 있다. 조윤제와 같은 자는 과거의 우리 문학은 외국 문학의 영향에 의하여 발전된 것처럼 사실을 외곡하고 있다. 특히 손 우성은 조선의 현대 문학은 서구라파 문예 사조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라고 지껄이고 있다. 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나라의 우수한 민족 문화 전통을 무시하며 현대 문학의 혁명적 전통을 말살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을 선동하는 반동적 자연주의 문학이나 민족 고전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는 결국 자기 민족을 렬등시하며 민족 문화를 《강대국》 즉 미국의 《문화》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반동적 꼬쓰모뽈리찌즘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과 량심 있는 문학, 예술가, 작가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미제의 꼬쓰모뽈리찌즘 사상의 침습을 결코 묵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거하여 나서고 있다.

과거 10여 년 간에 걸친 미제의 야수적인 침략 정책과 리 승만 역도들의 《양두구육》의 반동 통치에 의하여 빈궁과 기아와 살륙의 함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바야흐로 반미 감정이 팽배되고 있으며 반리 승만의 기세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응당히 이러한 사태가 남조선의 량심있는 작가들에 의하여 씌여지는 작품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 *

오늘 남반부 반동 문학은 한 마디로 말하여 완전히 질식 상태에 처하고 있다. 이 이상 더 절망과 허무를 되풀이할래야 할 수 없는 막다른골목에 전락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문학은 완전히 도식주의에 떨어지고 있다. 남조선 문학 작품은 거의 다 첫장부터 마지막까지 한숨과 절망의 도식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르죠아 자연주의 문학이 있는 반면에 진정한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오는 량심적인 작가들의 현실 폭로와 소위 잘난놈들에 대한 풍자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죠악에 대한 항거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정한 문학의 새 싹들이 돋아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례를 다음과 같은 작품들에서 볼 수 있다.

단편 소설 《내일쯤은…》에서 똑똑치 못한 동수라는 주인공이 자형(姉兄)인 《장판》의 소개로 어떤 상사에 취직한다. 그는 위인이 워낙 못난 탓으로 동료들에게 웃음'거리로 된다. 그에게는 《장판 처남》이란 보통 명사가 고유명사인 《한 동수》보다도 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동수가 취직한 상사에서 일하던 과장이 해임되는 날 밤 연회 석상에서였다. 연쟁 끝에 과장은 동수를 길목에 끌어 내여 《이 자식아 맞아봐라》하면서 때리는데 주인공 동수는 폭소를 터쳐 놓는 것이였다. 그는 지금 자기가 과장에게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장판》이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는 자꾸 매를 맞는 것이 좋았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주인공 동수를 괴뢰 집단의 《장판》에 비유하여 그의 위인이 못난 것을 야유하고 있으며 리 승만 괴뢰 집단들의 사기, 협잡 등 부정 행위와 그의 무능을 풍자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또한 단편 소설 《저오》에서는 미국 선교사의 야수적인 악랄성을 폭로하면서 마침내 그의 만행에 참지 못하여 돌멩이를 들고 선교사에게 대든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남조선 인민들에게서 뇌물을 략취하는 미국 선교사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다.

단편 소설 《폭소》에서는 주인공이 일제 때 학교의 교무주임을 구타한 죄로 무서운 고문을 받은 후 3년 간의 징역을 살았다. 그 후 그는 우편 배달부로 10년을 근속하였다. 그의 10년 간의 근속을 축하하여 서울에서 《각하》가 왔다. 바로 그 《각하》가 주인공을 고문하던 일제 때의 형사였다. 주인공은 밤에 려관으로 그를 찾아 갔다. 그놈은 돈과 녀자로 그를 회유하려고 하였다. 순간 주인공은 《내가 10여 년 걸어다닌 것도 너를 찾기 위해서다》 하면서 그놈을 찍어 죽이는 이야기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오늘 괴뢰 집단의 고관들이 례외없이 친일 주구들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로동자들의 체불 임금 요구와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이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로동자들의 투쟁을 정면으로 취급하는 작품들이 씌여지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단편 소설 《지층》에서 작가는 탄광 로동자들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칠봉의 아버지는 탄광 로동자로 일하다가 락반으로 죽는다. 칠봉이는 어려서부터 역시 그 탄광에서 일하여 왔다. 칠봉이와 함께 일하는 권 로인이라는 로동자가 있다. 그는 자기 딸과 함께 일시적 후퇴 시기에 서호진에서 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남하하였다. 그는 늘상 북반부를 그리워한다. 그래서 군사 분계선 가까이로 찾아가다가 삼척 탄광에서 한 겨울을 지내게 된다.

로동자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다. 몇 달씩 밀리다가 주는 배급도 입쌀은 쥐만큼 밖에 없고 보리쌀 투성이다. 따라서 임금은 석달씩 밀리고도 주지 않는다.

칠봉이와 권 로인은 체불 임금 지불을 요구할 것과 대우 개선에 대하여 광주 측에 항의할 것을 결심한다. 때마침 권 로인은 탄광 안에서 남포 구멍이 터져서 죽는다.

칠봉이는 자기의 아버지도 권 로인도 죽은 원쑤의 굴을 저주하면서 임금 지불을 요구하여 강경히 투쟁할 것을 결심한다.

이 작품은 로동자들의 투쟁을 좀 더 전면에 내여 놓지 못한 약점은 있으나 남조선 로동자들의 생활 모습을 진실하게 그리고 있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상과 같이 남조선 현실의 폭로와 항거의 문학이 비록 오늘은 큰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힘은 력사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에 의하여 멀지 않아 부패와 타락의 문학을 제압하고 지배적인 주류를 이룰 것이며 인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물론 오늘 남조선에 있어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파쑈 테로 통치가 일체 진보적인 것에 대하여 전대 미문의 탄압을 가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량심적인 작가들의 활동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의 량심있는 작가들의 항거의 목소리를 막아 낼 수 없을 것이며 미제와 리 승만 역적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류포시키고 있는 반동적 문학은 인민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남조선의 량심있는 작가들의 작품은 비록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학의 요구에서 볼 때 아직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나 그러나 이들의 작품은 사실주의에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탄압과 박해 빈궁과 고난의 황폐한 땅 우에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여 일어 나는 남조선 문학의 새 싹을 귀중히 아끼며 그들에게 풍요한 토양을 주기 위하여 계속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며 고조되는 우리 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현 시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

김 호·길

현 시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은 쏘련을 선두로 한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경제 발전의 일대 앙양의 영향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장성 강화되고 있다. 로동 운동은 더욱 더 대중성, 완강성, 조직성,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있다. 대규모적 파업과 시위, 실업자들의 행진은 현 시기 자본주의 세계의 특징이다.

전후 시기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과 개량주의자들은 마치 새 전쟁 준비와 군비 확장 정책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공황을 제거하며 근로자들의 전반적 취업을 보장한다는 《리론》을 광범히 고취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실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그러한 정책은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켰고 거대한 자금을 탕진하였으며 전혀 실업과 공황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을 휩쓸고 있는 경제 공황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모순들을 더욱 심각화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파국에로 자본주의를 몰아 넣고 있다.

경제 공황은 특히 미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1958년에 미국의 공업 생산은 1953년 수준으로 떨어졌는바 이것은 미국 공업이 최근 5년 간에 한자리에 답보한 것으로 된다. 공황으로 인하여 미국은 작년에 강철 생산이 1957년에 비하여 28%, 자동차 생산은 40%, 견직물 생산은 6%, 석유 생산은 7.5% 각각 감소되였다. 그리고 야금 공업은 그 능력의 60%가 조업되였을 뿐이다. 금년도 미국의 1.4 분기 공업 생산은 약간 장성하였으나 공황 현상은 의연히 지속되고 있다.

《공황을 모르는》 자본주의 발전 시대의 도래와 《번영》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던 아이젠하워까지도 자기의 신년 교서에서 미국 경제의 심각한 쇠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심각한 경제 공황은 서구라파 나라들과 기타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 형편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

작년에 영국의 공업 총 생산량은 1957년에 비하여 2—3% 축소되였으며 강철 생산은 10.4% 축소되였다. 서부 독일 경제도 침체 상태에 빠졌으며 불란서도 그의 나라의 총 생산액이 1957년에 비하여 2.5%나 감소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서 자본주의적 성격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수정주의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의 허위적 《리론》을 뒤집어 엎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공황을 피할 수 없다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증하여 주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심각한 경제 공황은 무엇보다도 이 나라들의 로동 계급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발광적인 군비 경쟁과 로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통하여 경제 공황을 모면하려는 자본주의 국가 독점체들의 시도는 근로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들씌우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 형편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나토가 존재한 지난 10년 간 5천억 딸라를 넘는 천문학적 수'자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한 나토 성원국들은 근로자들에게 더욱 더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면서 계속 군비 경쟁에 광분하고 있다. 1915년에 미국 공민 한 사람이 부담한 세금이 25딸라였다면 1958년에는 658딸라로 올라 갔다. 현재 미국에서 매개 세대는 1년 간 수입의 약 3분의 1을 세금으로 빼앗기고 있다.

지난 10년 간에 영국에서 세금은 40% 증가되였으며 불란서와 이태리에서는 2.7배 이상으로 증가되였다. 세금의 이러한 급격한 앙등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령락시키고 있다.

경제 공황은 대량적인 실업군을 산생시켰다. 이 실업군의 대량적 증가는 현 시기 비단 경제 공황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기술적 진보, 생산의 자동화로 말미암아 급격히 증가되였는바 이 사실은 기술적 진보가 마치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계급적 모순을 완화시키며 계급 투쟁을 약화시킨다고 떠벌리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을 여지없이 론박해 주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현 실업은 전후 시기에 일찌기 없었던 그러한 대규모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 세계의 우두머리인 미국에서 대중적인 실업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948년도에 10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실업자 수는 530만 명이였으며 1955—1956년에는 700만 명이였다. 그런데 축소된 통계 자료에 의하더라도 금년 초에 11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실업자 수는 1천 200만 명 이상에 달하였다.

(단위, 명)

	1958년	실업자 수	1959	실업자 수
미국	1월	4,494,000	3월	5,000,000이상
영국	1월	440,000	1월	667,000
불란서	1월	87,272	1월	200,000
서독	4월	590,000	1월	1,343,507
이태리	2월	1,926,000	1월	2,000,000
카나다	1월	520,000	1월	538,000
일본	3월	850,000	1월	1,000,000
호주	1월	74,765	1월	82,000
서전	2월	56,000	1월	73,000
노르웨이	2월	38,000	1월	47,000
벨기	4월	175,000	1월	329,948

이 수'자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나라들은 현재 실업자의 홍수 속에 잠기고 있다. 미국 미시간 종합 대학 교수 헤이버의 계산에 의하면 1957년 6월초부터 1958년 6월초까지의 기간에 미국에서는 4세대 중 1세대가 실업으로 고통을 겪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실업군의 급격한 대량적 증가는 독점체들과 그 추종자들을 큰 불안 속에 몰아 넣고 있다. 지난 4월 8일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국 실업자 회의에서 에이 에프 엘—씨 아이 오 합동 로조 지도자들과 로동 장관 미첼 그리고 상원 의원 더글라스까지도 미국에서 완전 실업자 수가 500만 명이나 된다고 불안스럽게 지적하면서 미국이 지금 《만성적인 대중적 실업에서 표현되는 민족적 재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오늘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은 제국주의 독점체들의 정책을 반대하여 더욱 더 단호하게 나서고 있으며 자기들의 생활 조건의 개선과 민주주의적 권리 및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에서 로동 계급의 파업 투쟁은 특별히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작년 1년 동안에 미국에서는 3,400건의 파업이 단행되였는바 그에는 220만 명이 참가하였다. 미국에서 작년 상반년에 파업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로동 일수는 연 735만 여 일에 달하였다. 영국에서는 작년 첫 11개월 간에 50만 6,000명이 참가한 2,535건의 파업이 단행되였다. 카나다 로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카나다에서 단행된 파업 건수는

1957년에 비하여 2배 장성하였다. 작년에 이태리에서는 600만 명이 파업 투쟁에 참가하였으며 희랍에서는 15만 명, 아르젠틴에서는 700만 명 이상이 각각 파업 투쟁에 참가하였다.

금년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파업 투쟁은 가일층 앙양되고 있는바 이 투쟁은 자본주의 제도를 그 근저로부터 뒤흔들면서 더욱 세차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 세계를 휩쓸고 있는 파업 운동의 특징은 우선 그것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광범한 계층을 포괄하면서 전례없는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으며 조직성과 완강성을 더욱 뚜렷이 띠고 있는 점이다.

《계급 조화》와 《계급 협조》에 대하여 미친 듯이 떠들어 대던 미국에서는 금년 첫 3개월 간에 파업이 없는 날이란 하루도 없었으며 그 파업들은 대규모적인 성격을 띠였다.

지난 1월 12일에 미국의 자동차 공업의 대중심지인 데트로이트에서는 실업자 위원회의 발기로 실업자들의 시위가 진행되였는바 시위 참가자들인 데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기구 제작 기업소의 이전 로동자들은 《살인적인 착취 제도를 종식시키라》, 《우리에게는 공황에 대한 책임이 없다》, 《우리는 보조금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 것을 요구한다》고 쓴 구호판을 들고 시위하였다.

2월 1일 뉴욕에서는 빵 제조소 로동자들의 파업으로 말미암아 뉴욕에서의 전체 빵 제품의 약 60%를 생산하는 약 700개의 빵 제조소가 페쇄되였다. 파업은 2만 5,000개의 식당, 1만 5,000개의 식료품 상점 및 1,000개의 빵 상점들의 사업에 영향을 주었다.

영국에서는 1월 24일 서부 웰스에 있는 수온시에서 탄광들을 페쇄할 데 대한 정부의 결정을 반대 항의하는 탄부들의 대중적 시위가 진행되였는바 이에는 약 1만 명의 탄부들이 참가하였다.

2월에 영국 버밍감에 있는 《모리스 콤머셔 카스 리미티드》 회사의 전공들은 기업주들이 로조의 권리를 유린한 것을 반대하여 거의 5주일 간 자기들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파업 투쟁을 계속하였다.

불란서 로동 계급은 드 골 정권의 반인민적인 재정 경제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로조 단체들의 호소에 의하여 3월 19일에 쌍 나제르의 여러 공업 기업소들에서 로동자들의 시위가 단행되였다. 이 시위에 참가한 1만 5,000명의 로동자들은 《반인민적 법령을 페지하라!》, 《쌍 나제르의 근로자들은 임금의 인상을 요구한다!》, 《생활비 등귀를 반대한다》,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이태리에서는 거의 매일과 같이 전국 각지에서 생활상 권리를 위한 근로자들의 파업이 단행되고 있다. 2월 28일 빵 제조 공장의 4만 명의 로동자들이 총 파업을 단행하였다. 그들은 임금 인상을 예견하는 전국적인 새로운 단체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2월 27일에는 로비고주의 7만 명의 고용농들이 파업을 단행하고 자기들의 물질적 형편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금년 1월말에 8만 명의 루르 탄부들이 실업을 반대하며 생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1933년 이래 가장 대규모의 시위를 단행한 사실은 특기할 사건으로 된다.

서독 주간 잡지 《문호네르 일류스트레이테》 기자는 루르 탄부들의 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루르에서 공포가 증대되고 있다. 루르에서는 위험한 불꽃이 일지 않고 타고 있다. 만일 불꽃이 일어나면 폭발될 수 있다. 그 폭음은 전 독일에 전 속력으로 전달될 것이다》.

3월 4일 일본에서는 400 여만 명의 로동자들이 춘기 투쟁 제 2차 공동 투쟁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적인 총 파업을 단행하였다. 3월 23일 일본 탄광 로동 조합에 망라되여 있는 20만 명의 로동자들은 일제히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 파업 투쟁은 1952년 이래 처음으로 되는 탄광 로동자들의 대규모적 파업이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파업 투쟁에 이와 같이 광범한 근로 대중이 조직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의 계급 의식이 날로 제고되고 있으며 자본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들의 굳센 투지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조직성과 완강성을 띤 이러한 대중적 파업 투쟁들은 자본가들을 불안과 공포 속에 휩싸이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작년말부터 2개월 이상 계속된 미국 《인터나쇼날 수확기 회사》 로동자 1만 3,000명의 파업은 승리적으로 끝났는바 그 결과에 로동자들은 회사측과 3개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임금을 시간당 6센트 인상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한 로동에 대해서는 시간당 4—8센트 인상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최근 시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앙양되고 있는 로동 운동의 다른 주요한 특징은 미제와 기타 서부 렬강 지배층이 추구하는 새 전쟁 도발 정책을 반대하며 군비 경쟁의 종식,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 원자 및 수소 무기의 금지와 그 시험의 중지를 요구하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진출의 형태를 더욱 더 뚜렷이 띠고 있는 점이다.

불란서 지배층은 알제리아에서의 전쟁을 위하여 1956년부터 1958년에 이르는 기간에 2만 1천억 프랑을 탕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더욱 더 많은 군사비를 배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불란서 근로자들은 《회담을 통하여 알제리아에서의 평화를 회복하라!》라는 요구를 내걸고 그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서부 독일의 도르트 문트 주민 63만 명은 그 지역에 미국 원자—로케트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여 강력한 시위와 파업을 전개하였다. 그들이 살포한 삐라에는 《도르트 문트에서 원자 죽음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이 전개되였다. 도르트 문트는 중구라파에서의 원자 무기없는 지대의 창설을 위한 투쟁의 신호로 된다》고 강조되여 있다.

아데나우어의 반동적 대내외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에는 서부 독일의 로동 계급을 비롯한 각계 각층이 망라되고 있다. 금년초에 서부 독일의 저명한 학자 및 문학 예술 일'군 150명이 련방 창설로 독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본의 위험한 침략 정책은 서부 독일 근로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며 독일 사회 민주당과 심지어 집권당인 기독교 민주 동맹 내부에서까지 불만을 야기시켜 아데나우어는 수상의 직위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정치적 각성이 급속히 제고되고 있는 일본 로동 계급은 오늘 승리의 신심도 드높이 반동적인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의 개악 반대, 《경찰관 직무법》의 반대, 기시 정부의 반동적 정책을 반대하며 일본의 중립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세째로 현 시기 로동 운동의 특징은 그것이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국제적 련대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불란서 근로자들의 파업 투쟁은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 통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보장되고 있다. 마르세이유, 보르도, 루아현의 피르미니, 모르비앙현의 로리앙시들에서 3월에 단행된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파업 투쟁의 특징은 근로자들의 단결과 여러 로조 단체들의 행동 통일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었다. 불란서 신문 《에코》지는 《행동 통일은 지금 엄연한 현실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안을 표시하였다.

지난 3월 10일 일본 사회당이 공산당과 공동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3월 28일에 공산당, 사회당, 일본 로동 조합 총 평의회, 일본 평화 위원회 등 많은 단체들이 일 미 《안전 보장 조약》 개악을 반대하는 전국 협의회를 결성한 것은 일본의 민주 력량이 미제와 기시 정부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단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파잉 생산 공황과 관련하여 《수익성이 낮은》 탄광들을 페쇄할 데 대한 정부의 결정을 반대 항의하여 2월 13일부터 2주일 간에 걸쳐 완강하게 계속된 벨기 탄부들의 총 파업은 각국 로동자들의 지지 성원을 받았다. 불란서 로동 총 련맹 지도부는 벨기 탄부들과의 련대성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자유 독일 직업 총 동맹 중앙 지도부는 벨기 로동 총 련맹에 벨기 탄부들과의 련대성을 표시하며 그들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하는 전문을 보냈다.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과 그들의 국제적 련대성은 로동 운동에 대한 공산당들의 지도하에서 이룩되고 있다. 로동 운동의 기수이며 조직자인 자본주의 나라 공산당들은 날이 갈수록 인민 대중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의 지도가 증대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공산당원들을 자기들의 절실한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불굴의 투사로 보고 있다. 불란서, 이태리 및 기타 서구라파 나라들에서 공산당원들의 지도하에 전개되고 있는 파업 투쟁은 이 나라 자본가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네째로 후진 국가들과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로동 운동이 급격히 앙양되고 있는 사실은 현 시기 국제 로동 운동의 주요한 특징으로 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은 이 나라들에서의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과 결부되여 진행되고 있다.

벨기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콩고에서는 2월 26일 약 1,000명의 아프리카인 뻐스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남로데시아에서는 2월 24일 잠베지강 카리바 땜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약 2,000명의 아프리카인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남아프리카 련방의 두르반 부두 로동자 1,500명은 경찰의 방해 책동을 박차고 파업을 하였다

파키스탄의 방직공 및 황마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타이에 있는 미국인 경영 우락 회사 로동자들의 승리적인 파업, 비률빈의 사탕 수수 재배원 로동자 약 2,000명의 파업 등 미국의 예속하에 있으며 또 지배층이 친미적이며 반인민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일부 아세아 국가들에서 파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미국의 예속하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제 국에서도 로동 운동은 앙양되고 있다.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수만명의 년금 수령자들과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군중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그들은 년금과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브라질 수도 리오 데 쟈네이로에서는 3월 13일에 초급 및 중등 학교 교원들의 파업이 진행되였다. 파업의 결과 2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들에서 수업이 일제히 중단되였다.

파업 투쟁이 특별히 앙양되고 있는 아르젠틴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3월 7일에 단행된 부두 로동자들의 파업으로 말미암아 약 200척의 선박들에 짐을 싣고 부리우는 작업이 중지되였다.

이렇듯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앙양되고 있는 로동 운동은 서방 지배층이 로동 계급을 기만할 목적으로 꾸며 낸 《계급은 소멸되였다》, 《로동자와 자본가 간의 협조》, 《인민적 자본주의》에 대한 허위성을 날날이 폭로하고 있다.

날로 앙양되고 있는 로동 운동에 겁을 집어 먹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평등, 박애, 자유의 기만적인 구호 밑에 계속 로동 계급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나서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반동과 파씨즘의 불길한 공격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파쑈의 길에 들어선 서부 독일에서는 공산당이 금지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적 력량과 로동 운동이 탄압을 받고 있다. 로골적인 독재의 길에 들어선 불란서에서는 민주주의적 권리와 인민 대중의 전취물들이 유린되고 있다. 기타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최근 파업 로동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빈번히 일어 나고 있는바 이는 자본가들이 로동 계급의 합법적 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는 길에 공공연하게 들어 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반동의 공세는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은 지난 3월에 진행된 불란서 자치 기관 선거에서도 보여 준 바와 같이 반동의 공세를 저지하는 가장 튼튼한 담보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은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 반동과 로동 운동 내에 있는 그 공모자들, 례를 들면 불란서 사회당 당수인 기 몰레나 나토 사무 총장인 스파크와 같은 사회 민주당 지도자들이 반동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좌경적 쎅트주의적 제한성은 반동과 파씨즘을 반대하는 투쟁에 대중을 동원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을 저해하는 이러한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전선, 즉 주되는 위험으로 되는 우경을 반대하며 좌익 력량을 통일시키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전개하며 또 쎅트주의적 편협성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전선에서의 당들의 투쟁은 민주주의적 력량 특히 로동 계급의 광범한 행동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로 되고 있다.

오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들은 조성되고 있다.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가 쏘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사회 민주당 대렬 내의 대다수는 비록 사회적 진보를 달성하는 방도에 대하여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평화와 사회적 진보의 옹호자들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반공산주의 책동자들을 물리치고 각종 조류의 로동 운동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자기 리익을 수호하며 평화를 옹호하기 위하여 로동 계급이 공동으로 행동할 데 대한 호상 접수할 수 있는 강령을 작성할 때는 왔다》고 언명하였다.

바로 현 시기의 로동 운동은 이러한 강령을 작성할 것을 긴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로동 계급의 리익을 배반하고 부르죠아지와의 타협의 길을 걷고 있는 사회 민주당의 우익 지도자들은 지난 날에 국제 로동 운동에 끼친 자기의 분렬 행동을 하루 속히 포기하고 공동으로 행동할 데 대한, 호상 접수될 수 있는 강령을 작성하자는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호소에 호응하여야 할 것이다.

반동과의 투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로동 운동은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에 튼튼히 의거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은 자기들의 투쟁에서 사회주의 국가 로동 계급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받고 있다. 강력한 사회주의 체계의 존재는 반동의 공세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에게 고무적 힘으로 되고 있다.

현 시기 쏘련 인민 경제 발전 7개년 계획은 반동 및 제국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국제 로동 운동과 모든 민주주의 력량에 대한 강력한 정신적 성원으로 되고 있다.

쏘련의 7개년 계획에 무한히 고무된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은 자기의 대렬을 더욱 결속하면서 가혹한 자본주의 착취와 실업, 빈궁 및 새 전쟁 도발을 반대하며 평화와 사회적 진보 및 로동 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을 더욱 더 치렬히 전개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은 이 위대한 투쟁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들에 충실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령도에 점차 더욱 더 의거하고 있다. 평화와 사회주의에로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의 전진 운동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 전진 운동은 모든 반동의 공세를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 자료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혁명적 문학 예술

—혁명 가요와 연극 활동을 중심으로—

김 재 하
박 동 학

1930년대 초부터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국 광복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였다.

이 간고한 혁명 투쟁 행정에서 김 일성 동지는 사상 교양의 강력한 무기의 하나인 혁명적 문학 예술 활동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의 개화 발전에 심중한 관심을 돌렸다.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는 유격대원들의 집체적인 지혜에 의하여 혁명 가요, 연극, 정론적인 산문, 무용 등 기타 여러 가지 쟌르의 문학 예술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 혁명적 문학 예술 작품들은 일제와의 가렬한 전투장에서, 어려운 행군 도상에서 창작되여 불리워졌고 공연되였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전투의 짬짬을 리용하여 희곡도 쓰고 가사도 짓고 작곡도 하였으며 손수 배우가 되기도 하였다. 유격대원들은 총을 잡으면 적을 소탕하고 붓을 쥐면 문학 활동으로써 원쑤와 싸웠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문학 예술 작품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일제와 그 주구배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온갖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승리를 가져 올 혁명적 락관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일관되였으며 인민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 등으로 하여 지극히 풍부한 사상 예술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들에 형상화된 긍정적 주인공들은 당적 인간의 전형으로서 당과 조국에 대한 영웅적 복무의 투사들이였다. 주인공들은 혁명 투쟁에서 필승의 신념으로 불탔으며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비타협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였다. 이러한 주인공들의 성격적 특질들은 이 시기 문학 예술의 사상 예술성을 더욱 풍부히 하였다.

이와 같은 풍부한 사상 예술성으로 하여 이 시기에 창작된 문학 예술 작품들은 유격대원들 속에서는 물론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 열렬한 사랑을 받았고 인민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여 갔다. 이리하여 이 혁명적인 문학 예술 작품들은 원쑤를 무찌르는 전투 마당에서와 어려운 행군 도상에서 유격대원들의 사기를 무한히 고무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간고한 투쟁 행정에서 승리에 대한 신심과 백절불굴의 투지를 무한히 고무하여 주었다. 또한 이 혁명적 문학 예술 작품들은 유격 지구 인민들을 혁명적인 투쟁 의욕과 일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들끓게 하였으며 조국 광복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혁명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켰다.

본 론문에서는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수 많은 문학 예술 작품들 중 오늘에까지 널리 전해지고 있는 혁명 가요와 연극의 일단을 고찰하기로 한다.

혁명 가요는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혁명적 문학 예술 작품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인민 대중 속에 널리 보급된 쟌르 중의 하나이다.

혁명 가요는 광범한 항일 유격대원들에 의하여 창작되였다. 따라서 이에는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의 혁명적 지향과 성격적 특질들이 풍부히 반영되여 있다.

혁명 가요는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에서 가장 주되는 문제인 주권에 대한 문제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조선 인민의 투쟁 목표를 시'적 음향으로 들려 주었다.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가》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 2천만의 조선 동포야 총 동원하여
> 반일 혁명 통일 전선을 굳게 다지고
> 왜놈의 야만 통치 어서 때려 부시고
> 인민 정부 건설함이 제 1조로다
> …

이렇게 시작되는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가》에는 1930년대의 조선 현실을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리론으로 분석하여 인민들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 준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의 기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여 있다. 이 가요는 인민들 속에 널리 보급되여 그들의 혁명 투지를 북돋아 줌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가》는 수 많은 유격대원들에 의하여 퍼졌으며 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광명한 미래를 보았고 그러한 미래를 쟁취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항일 유격대원의 한 사람이였던 투사 심 순 동지는 일제에게 체포되여 모진 고문 끝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가》와 《적기가》를 감방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 사상을 선전하였다. 그는 사형을 앞둔 그 시각까지도 굴하지 않고 이 노래를 불렀고 투사답게 최후를 끝마쳤다. 이와 같이 이 노래는 항일 유격대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고 죽음을 앞둔 시각에도 불리운 투쟁의 노래였다.

《통일 전선가》는 혁명 력량의 단결 강화를 내용으로 한 가요로서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가》와 함께 그 당시에 널리 불리워진 가요 중의 하나이다.

> 착취와 억압 받는 조선 민족아
> 항일의 전선에 달려 나오라
> 다달았네 다달았네 우리 사회에
> 조국의 광복 시기 다달았네
> 후렴 (풍운같이 일어나자 모든 일터에서
> 달려 가자 통일 전선 한마당에로

이와 같이 시작되는 《통일 전선가》는 병사는 선봉에서 칼을 날리고 늙은이와 어린이는 한마음, 한소리로 총 동원하여 일제를 소탕하고 조선 삼천리에 인민의 락원을 건설할 것을 내용으로 한 투쟁과 랑만으로 가득 찬 노래이다.

혁명 가요들에는 조국 광복을 위하여 항일 혁명 투쟁에 궐기한 항일 빨찌산들의 고귀한 정신 세계와 그들의 모습을 반영한 가요들이 허다하였다. 《유격대 행진곡》, 《조선 인민 혁명군》, 《혁명군의 노래》, 《혁명의 길》과 여러 종류의 《혁명가》들이 그를 잘 말하여 준다.

혁명 가요들에는 반일 혁명 사상을 고취하며 일제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의 가요들이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반일가》, 《반일전가》, 《간도 토벌가》, 《반일 병사가》, 《총 동원가》 등을 비롯한 수 많은 혁명 가요들이 그 중 대표적인 것이다.

> …
> 나의 부모 너의 동생, 그대의 처자
> 놈들의 총창 끝에 피 흘렸고나
> 나의 집과 너의 밭은 놈들의 손에
> 재'더미와 황무지로 변하였고나
> …
> 일어나라 단결하라 로력 대중아
> 굳은 결심 번치 말고 삶'길 찾으려
> 붉은기 아래 백색 공포 뒤엎어 놓고
> 승리의 개가 높이 만세 부르자
> (《반일전가》에서)

이러한 가요들은 모두다 조선 인민을 가혹하게 탄압, 압박, 착취하며 혁명 투사들을 무참히 투옥, 학살한 일제의 만행을 폭로 규탄하고 철천지 원수 일제를 기어코 격멸 소탕하고야 말 굳은 결의와 성스러운 조선 인민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상으로 충만되여 있다.

혁명 가요들에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하에 있는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맑스—레닌주의 견지에서 폭로하고 근로 대중의 혁명적 궐기를 호소하는 내용의 가요들이 허다하다. 《불평등가》, 《계급전가》, 《로동자의 노래》, 《가난한 자의 노래》, 《기민 투쟁가》, 《빵없는 자의 노래》, 《결사전가》, 《자유가》, 여러 종류의 《혁명가》 등은 모두다 일제를 비롯한 국제 파씨즘의 지배하에서 로동자와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억울한 처지의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러한 사회 모순을 청산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강한 호소로써 보여 주고 있다. 《불평등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

다수는 일하고도 살 수 없는데
소수는 놀고도 잘 사노나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면
레닌 동무 쓰신 학설 연구하여라
…
전 세계 무산자는 단합하여서
타도하자 군벌과 제국주의를
박멸하라 불평등과 모든 착취를
그대로 두고서는 살지 못한다
…

이 가요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그 본질을 날날이 폭로하면서 인민들을 투쟁에로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 가요에는 인민들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리상도 뚜렷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녀자 해방가》는 봉건적, 자본주의적 구속과 압박을 반대하고 남녀 평등 행복 사회를 건설하며, 로동자와 농민의 진정한 해방을 위하여 남자와 같이 혁명 투쟁에 나설 것을 녀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혁명 가요는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긴요한 문제들, 례하면 혁명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문제들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파쟁 분자들을 폭로하고 항일 력량을 단결시키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였을 때 이러한 내용이 혁명 가요에 반영되였다. 《파쟁 반대가》가 그의 일례로 된다.

들어라 조선, 중국 로력 대중아
파쟁은 다름 아닌 반혁명이다
일제놈에 충실한 주구놈들은
조선의 가지각색 파벌들이다
교활한 파쟁 분자 두목놈들은
민생단 개떼 우두머리니
일제놈과 파쟁 분자 민생단들은
모두다 다 같은 우리 원쑤다
… (《파쟁 반대가》에서)

혁명 가요들 중에는 아동 혁명단원들의 사상 감정을 노래한 가요들도 허다하다.

《어린이 곡》, 《삐오넬》, 《유희곡》, 《삐오넬가》, 《아동가》, 《나도 자라》 등에서는 나어린 투사들의 용감한 투지와 조국애의 심정이 높이 노래 불려지고 있다.

…
해질녘 쓸쓸히 류배 갔단다
어머니 어머니 념려를 마세요
나도 자라 아버지 뒤를 이어서
혁명에 흘린 피 빛내 오리다
(《나도 자라》에서)

혁명 가요에는 또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을 반영한 노래들도 적지 않다. 《쏘련 옹호가》, 《국제가》, 《10월 혁명가》, 《레닌 탄생가》, 《맑스—레닌 추억》, 《10진가》 등은 그 중 대표적인 노래들이다.

이 가요들은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을 지지하며 위대한 쏘련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사상과 함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원쑤를 반대하여 싸워 이기고야 말리라는 승리의 신심을 약동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전 세계 무산자와 억눌린 대중
무장 들고 나서라 혁명 전선에
때려라 부셔라 자본 제도를
죽더라도 지키자 위대한 쏘련
(《쏘련 옹호가》에서)

혁명 가요에는 이 밖에도 《어머니 리별》, 《망향가》, 《고향 리별가》를 비롯한 유격대원들의 깊은 정서 생활을 반영한 노래들과 《유희곡》, 《무도곡》 등 명랑한 군중 가요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요들은 혁명 투사들의 심오한 서정세계,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국심, 혁명적 락관주의 등을 우수하게 표현하였다. 조국에 가장 충실하였던 그들은 또한 가장 참된 인간성의 소유자였으며 고향과 부모 처자에 대한 깊은 애정의 소유자들이였으며, 또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활기있고 명랑하고 락천적인 생활 감정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다.

혁명 가요들은 합창, 독창, 대화창, 병창, 만창(이것은 주로 적을 야유하는 음악 형식으로 리용됨), 무창(춤 추며 노래 부르는 형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래 불리워졌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노래를 지어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서 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손수 악기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일도 많았다. 그들은 밀영지에서 대고, 소고를 비롯하여 해금도 만들어 자기들의 작품을 연주하였다.

항일 유격대원들의 심혈로 창작된 혁명 가요들은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교양하고 고무하여 주는 역할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지 전투 마당에서 적들을 위압하며 승리하는 전투적 무기로도 되였다.

1936년 장백현 대덕수 전투 때에는 적 《토벌대》들과 싸우면서 유격대원들은 혁명 가요를 부르며 하모니카도 불었다. 이리하여 유격대원들의 자신만만한 기세 앞에서 적들이 겁을 먹고 당황해할 때 김 일성 동지는 한개 부대를 우회시켜 놈들을 섬멸케 하였다.

1936년 6월 시난차 전투 때에는 김 일성 동지의 전투 명령 속에 《문화 공작 반원들은 연예회를 준비할 것》이라는 사항이 포함되여 있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항일 무장 투쟁에서 문학 예술이 얼마나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으며 김 일성 동지께서 문학 예술 활동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졌고 배려를 돌렸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항일 유격 부대들이 이르는 곳 마다에 노래가 있었고 연극이 공연되였다. 그것은 전투원들의 사기를 고무하고 유격 지구 인민들에게 힘있는 교양의 무기로 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혁명적 문학 예술 작품들 중에서 연극은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연극은 등장 인물의 직접적인 동작과 언어, 그리고 생활 반영의 예리성의 힘에 의하여 관중들에게 특별한 사상 예술적 영향력을 준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하여 항일 무장 투쟁에서 창작 공연된 극 작품들은 가장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선전 선동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극 작품들 중에서도 일제의 침략과 그들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억압 받고 착취 당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 형편과 그들의 반일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무장 획득을 주제로 한 작품, 빨찌산들과 인민들과의 련계, 봉건적, 자본주의적 질곡으로부터 녀성들의 해방을 주제로 한 작품, 적들의 추악상과 멸망에 직면한 그들을 야유 풍자한 작품, 미신 타파를 비롯한 계몽적 내용을 담은 작품들은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연극 《혈해》는 비장하고 격동적인 내용으로 관중들을 흥분시켰다. 이 작품은 유격대원의 한 가정을 보여 주고 있다.

큰 아들은 유격대에 참가하고 어머니는 조국 광복회 회원으로, 어린 아들 딸은 아동단원으로 일한다. 적들이 이 집에 달려와 큰 아들의 행처를 대라고 하며 방금 왔던 빨찌산 공작원을 내 놓으라고 할 때 그들은 공포심보다도 참을 수 없는 증오로써 적에 반항하여 나선다. 적들이 어머니와 아들을 위협하고 드디여는 작은 아들을 죽인다. 그러나 적들은 빨찌산의 습격에 의하여 소탕되고 만다.

이 작품은 투쟁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당시의 사정과 항일 무장 투쟁의 인민과의 혈연적 련계를 선명히 반영하고 있다.

첨예한 갈등으로 일관하였고 긴장된 슈제트를 가진 이 연극의 매개 장면들은 당시 조선

인민이 겪은 생활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하였으며 원쑤 앞에 굴하지 않는 조선 인민의 기개와 투지를 감동적으로 보여 주었다. 나어린 둘째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맏아들을 비롯한 유격대원들의 투쟁적 면모들은 조선 인민의 불타는 반일 애국심과 항일 혁명 투사들의 혁명적 투지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원쑤 일제의 잔악 무도한 만행을 폭로함으로써 조선 인민이 당한 환경과 함께 항일 무장 투쟁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연극 《혈해》는 당시에 커다란 선전 선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잘 말하여 주고 있다.

1936년 시난차 전투 후에 《혈해》가 공연되였는데 인민들은 극히 감동되였다. 일제 침략자들의 만행을 직접 겪고 있던 인민들은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두 주먹을 부르쥐였다. 연극이 끝나고 막이 닫히자 군중들은 즉석에서 《일본 제국주의 강도들을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웨쳤고 청년들은 침략자들과 착취자들을 반대하여 총을 메고 싸우겠다고 앞을 다투어 무대 앞으로 달려 나왔다.

이와 같이 연극 《혈해》는 높은 사상—예술적 힘을 가지고 인민들을 교양하였으며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유격대 조직 초기에 의의를 가졌던 무기 로획을 주제로 한 연극 《아버지는 이겼다》는 아버지의 형상을 통하여 유격대원들의 애국주의, 그로부터 흘러 나오는 용감성과 대담성을 지극히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버지는 철도 로동자로 가장하고 단신으로 철도 부설 공사를 경비하고 있던 경관 두 놈을 처단하고 무기를 로획한 다음 이동 감시대 순찰 경관 한 놈도 포로하였다. 그로써 그친 것이 아니라 집을 기습하여 온 사복 경관 두 놈을 생포하고 위험한 순간에 가족들을 구출한다. 실로 이 작품에서의 아버지의 승리는 곧 유격 부대의 승리를 의미하며 위험한 순간에 가족들을 구출하는 것은 곧 유격 부대에 의한 인민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또한 원쑤들의 폭행하에서도 입을 봉하고 비밀을 고수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하여 혁명 투사의 일가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우리 나라 인민의 고결하고도 강의한 의지를 보여 주기도 한다.

이 작품은 한 유격대원이 창작한 것이다. 그는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이 작품을 써서 동지들에게 전한 다음 곧 전사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하나 하나의 작품 창작은 유격대원들의 애국적 정열에 의하여 창작되였고 고귀한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서까지도 하여야 할 전투적 임무이기도 하였다. 무기를 들었을 때는 무기로써, 붓을 들었을 때는 붓으로써 혁명에 이바지한 항일 유격대원들의 혁명 정신을 우리는 계승하여야 한다.

연극 《유언을 받들고》는 1932년 춘황 폭동의 선두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희생된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고 유격대에 참가하는 나어린 남매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작품은 수 차에 걸쳐 상연되면서 수정 보충된 집체 창작품인데, 이 연극을 보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청년 남녀들은 물론 로인들까지도 조직에 참가할 것을 자원하여 나서게 한 우수한 작품이다.

로농 동맹을 주제로 한 《춘보와 길남》, 공산주의 청년단의 단결된 투쟁을 보여 주는 《10월의 결의》 등은 모두 일제 침략자를 반대하여 궐기한 혁명 대중의 불굴의 의지와 높은 정신적 풍모를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이다.

이 외에도 원쑤들의 만행을 폭로하며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쳐부시고야 말 전투적 내용을 담은 작품, 반《민생단》 투쟁과 반일 인민 대중의 통일 단결을 내용으로 한 것 등 수다한 작품들이 상연되였다.

풍자적 수'법에 의하여 적들의 부패상을 폭로 야유하고 조선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반영한 작품으로서는 《경축 대회》와 《게다짝이 운다》 등이 있다.

널리 알려진 연극 《경축 대회》의 첫 장면은

일제 《토벌군》의 진중이 그 무대로 되고 있다. 혁명군 《토벌》에서 《대승리》하였다고 경축 주연을 베풀고 있는 장면은 놈들의 허장 성세와 포악성을 여실히 드러내 놓고 있다. 고양이 수염을 기르고 은테 안경을 썼으며 가죽 주머니에 군도를 늘어뜨린 일본 장교들이며 그 앞에서 굽실거리는 위만군의 비렬성은 그들의 본질을 잘 드러나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적들의 본질은 극히 풍자적으로 조소 폭로되고 있다.

혁명군의 습격에 의한 원쑤들의 비참한 최후 비명은 그들의 호언 장담과 허장 성세를 여지없이 부셔 버리는 데 있어서 극히 극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연극 다음 장면은 밀림 속에 우등'불을 피워 놓은 우리 부대 진영이다. 일군 지휘처를 기습 소탕하고 돌아 온 습격조 동무들을 경축하는 오락회가 한창이다. 밀림 속에 은은히 울리는 혁명 가요며, 땅을 구르는 춤은 진정 오늘의 승리를 경축하며 앞날의 승리를 다짐하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혁명적 락천성의 선명한 반영으로서 충분하다.

이 작품의 마지막은 대원들이 모두다 자기의 투쟁 결의를 표명하는 감격적인 장면이다. 비록 총은 못 쏘지만 재봉대원으로라도 계속 헌신 분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늙은 녀대원, 자기의 눈은 비록 근시안이지만 후방에 두지 말고 전투 부대에 보내 달라고 탄원하는 다른 유격대원의 결의는 모두다 그들의 애국주의 정신의 구체적 반영이다. 전 대원의 혁명 투쟁의 결의가 합창시로 울려 나오는 장면은 실로 일제의 폭압 밑에서 신음하던 조선 인민에게 혁명의 투지를 북돋아 주는 전투적 호소를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다. 사실 이러한 호소에 의하여 인민들은 빨찌산을 생명을 바쳐 도왔으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였던 것이다.

단막극 《게다짝이 운다》는 집체적으로 창작된 풍자극이다. 이 작품은 일관하여 일제의 가소로운 최후를 풍자하고 있다. 유격대에 의하여 소탕된 경찰서장의 처가 죽은 남편의 게다짝을 들고 울다가 《가미다나》 앞에서 게다짝을 치면서 남편의 명복을 비는 장면을 보여 준다. 이 장면을 통하여 원쑤에 대한 조소를 충분히 야기시키며 일제의 어리석음과 부패상을 보여 준다. 또 이 작품은 일제의 멸망의 필연성에 대한 함축성있는 반영이기도 하다.

연극 《성황당》은 미신 타파의 계몽적 내용을 담고 있다. 배고파 고생 겪던 한 초부는 문득 한 꾀를 생각해 내고 성황당 큰 나무 뒤에 숨는다. 때마침 제물을 이고 온 촌 아주머니가 성황당에 제물을 차려 놓고 엎드려 빌기에 한창이다. 초부는 때를 놓칠세라고 여러 번 제물을 집어 가지고는 나무 뒤에 숨는다. 이윽고 머리를 들고 눈을 뜬 촌 아주머니는 지성이 하늘에 닿아 귀신이 음식을 먹은 줄 알고 소원 성취하였다고 기뻐하며 돌아 간다. 군중은 배를 움켜 쥐고 웃게 된다. 그 웃음은 귀신이란 세상에 없으며 귀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말하여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봉건적인 결혼 제도를 반대한 《홍수》와 봉건 유습을 반대하고 녀성들의 해방과 권리를 호소한 《맏며느리》, 《깨여진 축사발》 등은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 기치 밑에서 생의 참된 보람을 찾게 된 젊은이들의 높은 도덕적 품성과 앞날의 희망과 혁명적 계급 의식을 정확하게 보여 준 작품들이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의 연극 활동은 유격 근거지가 창설되기 시작하던 첫 시기부터 활발히 전개되였다. 전문적인 극작가는 물론 각종 설비조차 없었던 조건하에서 이 사업은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오직 불타는 애국심과 혁명적 정열과 집체적인 창발력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이것은 문학 예술이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전체 운동의 《작은 바퀴와 나사못》으로 되여야 한다는 레닌적 리론의 구체적 실천상에서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극 작품이 가지는 사상 예술적 특성 뿐만 아니라 그를 창작하며 상연하기 위한 투쟁은 이 문학을 리해함에 있어서 떼여 놓을 수 없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의 연극 활동은 실로 전투적이였다. 날마다 《토벌대》들이 밀려 들어와 쉴새없이 전투가 버러지는 어려운 조건에서 혹은 주림과 추위를 이겨내야 할 그러한 간고한 환경에서 이 사업은 하나의 전투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학교가 적에 의하여 소각되면 들판에서나 고지에 무대를 가설하고 공연하였다. 그들은 진대 나무를 도끼로 쪼개여 반반한 쪽이 우가 되게 하여 무대를 꾸렸다. 위장용 방설복과 천막같은 것은 무대 막으로 되였다. 물론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자연 경치 그대로를 배경으로 하여 공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래나 춤에 비하여 연극은 그 준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난관에 부닥쳤다. 부대의 이동으로 부득이 지금까지 우수한 연기를 보여 주던 동무가 다른 부대로 가는 일도 있었고 보다 중요한 과업을 맡고 지방 공작에 나가는 동무들도 있어 연극 공연이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였다. 연극 대본도 곤난하였거니와 종이는 물론 등사 잉크도 없는 조건하에서 개별적 대사들을 종이 쪽지에 써서 암송하기도 하였다. 이러는 과정에서 수차 혹은 수십차의 전투를 하여야 하고 다른 정치 공작, 식량 공작도 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우등'불 앞에서도 행군 도중의 짧막한 휴식 시간에도 대사를 외우고 동작을 련습하였다. 전체 집단은 여기서 그야말로 연출가로서 따뜻한 방조를 주었다. 출연자들은 풀뿌리를 다지여 색조를 만들고 인민들이 보내 준 밀'가루로 화장을 하였다.

혁명에 충실하였고 그의 승리를 확신한 유격대원들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공연하였으며 인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째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며 무엇을 위하여 어떤 정신으로 투쟁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혁명적 계급 사상 교양을 위하여 공연하였다.

우에서 본 바와 같이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혁명 가요와 극 작품들은 철저한 당성과 인민성으로 하여 당적 문학의 모범으로 된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혁명적 문학 예술은 해방 전 우리 문학의 혁명 전통에서 가장 전투적인 문학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혁명적 문학의 의의는 실로 크다.

항일 빨찌산들의 심혈로 창작된 이 혁명적 문학 예술은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우리 문학에서의 레닌적 당성 원칙을 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층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그의 혁명적 내용으로 하여 인민 대중을 조국 광복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킨 강유력한 사상적 무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혁명적 문학 예술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된 항일 무장 투쟁에서 사상 사업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항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바퀴와 나사못》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과 그 과정에서 창작된 혁명적 문학 예술은 1930년대에 활동한 프로레타리아 작가들에게 고무적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당성과 계급성을 옹호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강력한 사상 예술적 영향력을 주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된 문학 예술 활동에 대한 방침은 해방 후 우리 당의 문예 로선의 준비로 되며 기초로 된다. 또한 문학 예술 발전을 위한 방침과 그의 활동은 해방 후 우리 문학의 당적이며 혁명적인 전통으로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문학 예술과 인민 생활과의 련계와 우리 문학의 사상 예술성을 고수함에 모범으로 되고 있다.

승리에 대한 확신, 혁명 위업에 대한 충실성,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인민과의 밀접한 련계, 고상한 동지애, 원쑤에 대한 증오, 불요 불굴의 투지가 일관하여 반영된 이 혁명적 문학 예술은 오늘도 인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 교양의 강유력한 수단으로 복무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되고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출판물에서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알제리아 인민의 투쟁

알제리아 공산당
제 1 비서 라르비 부할리

알제리아에서는 민족 해방 전쟁이 5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 알제리아 주둔 불란서군 총 참모장이였던 살랑 장군과 쥬앙 원수는 얼마 전에 희망적인 것을 현실로 간주하고 《전쟁은 끝났다고 볼 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부단히 우심해지고 있다. 전쟁은 더욱 더 류혈적인 것으로 되여 많은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 더우기 전쟁은 전체 북아프리카에 파급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부단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결코 자진하여 자기의 획득물을 단념하지 않았으며 식민지에서 얻은 막대한 리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동 시대에 있어서 독립에 대한 튜니샤, 모로코 인민들의 지향을 비교적 빨리 승인한 불란서 제국주의는 어째서 식민지 알제리아에서 짜내는 리윤보다 더 많은 대'가가 요구되는 알제리아 전쟁을 그렇게도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 질문은 불란서 제국주의가 알제리아라는 이 《진주(眞珠)제국》에서의 자기의 경제, 정치, 전략적 리익을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써 설명된다.

* *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1830년 알제리아에 대한 무력 침공 초기부터 알제리아 인민에게서 모든 부원을 빼앗으려 하였다. 그들은 가장 비옥한 토지를 략탈하였다. 신용 기관, 운수, 대상업의 기본 부분, 경공업의 일부 부분 그리고 사회적 기업소들이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들어 갔다. 그리하여 로동 계급과 빈농민들만이 아니라 알제리아 주민의 거의 전체 사회 계층들이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알제리아 민족 부르조아지까지도 계급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분야에서 알제리아 인민은 자국 통치에서 계통적으로 구축되였다. 알제리아 인민은 가장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마저 박탈 당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은 알제리아를 《불란서 령토》로 만들며 알제리아 인민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였으며 자주적 알제리아 국가를 상기시킬만한 모든 것을 파괴하였다. 학교에서는 아랍어를 배워 주지 않고 있으며 아랍어는 외국어로 취급되고 있다. 교수가 불란서어로 국한되여 있으므로 85%의 알제리아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추악한 식민지 제도는 우리 인민을 억압과 비인간적 착취, 극도의 빈궁과 무식, 온갖 자유의 결여와 일상적인 천대 속에 빠뜨렸다. 알제리아인들은 자기 강토에서 외국인처럼 살아 왔다. 알제리아 인민은 이 현대 노예 제도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1954년 11월에 무기를 들었다. 초기에 불란서 지배층은 독립에 대한 우리 인민의 크나큰 지향과 항쟁에 대한 우리 인민의 거대한 능력을 과소 평가하고 알제리아 투사들을 《고

립된 반란자 도당》이라느니, 《외국의 앞잡이》라느니 하고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안 가서 전체 알제리아 인민이 궐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들의 상투적인 야만적 폭력을 사용하였다. 식민주의 행정 당국은 류혈적인 탄압을 감행하였다. 모든 민족 단체와 정당들이 해산되였고 그의 성원들이 체포되였다. 수만명의 애국자들이 감옥과 집중 수용소에 감금되였다. 성인 남녀와 어린이 등 수천의 알제리아인들이 가장 야만적인 고문을 당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문에 못 이겨 죽었다. 불란서 당국은 유력한 파괴 수단으로 무장한 60만의 군대를 알제리아에 투입하였다. 이에 헌병대, 경찰 그리고 알제리아에 살고있는 구라파인들로 편성한 민병대를 첨가한다면 알제리아 인민은 80만의 적군에 대항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확언할 수 있다.

불란서 군대는 《조정》이라는 구실하에 알제리아에서 소탕전을 계속하고 있다. 불란서 군대는,알제리아 민족 해방군에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는 농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리하여 주민들이 혹독한 경제적 봉쇄를 당하고 있는 《기아 지대》라는 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타 지방으로 소개당하고 있는 《무인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온 부락이 포와 나팜탄의 세례를 받아 문'자 그대로 황폐화되고 마는 곳들도 있다. 금년 2월에는 지어 독가스까지도 사용되였다. 이러한 《공적》과 함께 절도, 녀성들에 대한 릉욕,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식량과 종곡의 략탈이 례사로 되고 있다. 최근 4년 간에 60만 명 이상의 알제리아인들이 학살되였는데 그 대다수는 녀성, 어린이, 로인들이다. 약 30만 명의 알제리아인들은 자기의 살림을 버리고 튜니샤와 모로코로 피난하였다.

1954년 11월부터 정권을 장악한 모든 불란서 정부들은 알제리아 문제를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알제리아의 독립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그 정부들은 알제리아 인민에 대한 전쟁 승리를 타산하였다.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기 몰레와 로베르 라코스트를 두목으로 하는 불란서 우익 사회당원들이 특출하였다. 그들은 전쟁을 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불란서 사회 여론에, 지어는 로동 계급 속에 배외주의적, 민족주의적 기분을 전파시켰다. 그들은 알제리아에서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불란서의 재정 경제 형편을 악화시켰으며(불란서는 전쟁에 매년 30억 플랑을 지출하고 있다), 불란서 청년들을 타락시켰으며, 전 세계에서 불란서의 위신을 저락시켰으며, 불란서의 자주성을 어느 정도 손상시켰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 4 공화국을 페지하고 드 골 개인 정권을 수립케 한 1958년 5월 13일 극단한 식민주의자들의 정변을 위한 정치, 사상, 군사적 지반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5월 13일 정변 이전에는 불란서 사회 여론에서와 지어는 일부 알제리아 민족주의자들 속에서도 드 골만이 알제리아에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환상이 전파되였었다. 그러나 10개월 간의 드 골의 집권은 전쟁이 종전보다 더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알제리아에 대한 드 골의 정책은 그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불란서 독점 자본의 경제적 리익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독점 자본은 무엇보다도 우선 알제리아의 동력 자원의 략취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근년에 진행된 탐사에 의하여 사하라에는 석유 및 가스 대매장지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일련의 모순들이 발로되고 있다. 주로 대토지 소유자들이 실시하는 상투적인 식민주의 정책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식민주의자들에게 리윤을 보장해 주는 항시적 전쟁 상태와 용이하게 융합될 수 있다. 그러나 불란서 독점 자본에 대해서는 문제가 달리 선다. 사하라에 있는 풍부한 석유 및 가스 매장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불란서 독점 자본가에게는 평온한 알제리아가 요구된다.

드 골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는 《용감한 사람들의 세계》를 운운하면서 강자의 립장에 서 보려고 군사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 드 골의

정책은 결국 독점 자본의 기본 리익을 옹호할 만한 타협을 달성할 목적으로 꾀를 부리는 데 있다. 콘스탄팅에서 한 자기의 허위적인 연설에서 그는 알제리아 투사들이 무기를 놓고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대신 농민에게 25만 헥터의 토지를 분배해 주며 본에 야금 기업소를 건설해 주며 로동자들에게 임금을 인상해 주며 알제리아인들에게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큰 가능성을 제공하며 알제리아에 불란서에 존재하는 사회법을 보급하겠다는 것 등등을 약속하였다. 이렇듯 드 골은 알제리아인들이 투쟁을 멈추고, 인민들의 의견을 고려함이 없이 창설된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자치 국가의 지위를 알제리아가 점차 받게 되리라는 약속에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질에 있어서 드 골은 극단한 식민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알제리아를 내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그는 다만 낡은 식민지적 착취 형태를 현대적 형태——신식민주의로 바꾸려 하고 있다. 그는 정권을 탈취하자 곧 알제리아의 독립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집권 10개월 동안에 회담을 위한 하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각 수상 미쉘 드브레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불란서 당국은 알제리아에서 자연, 력사, 도덕을 고려한다… 알제리아는 불란서의 자주적 령토이다》. 그는 계속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정치 문제에 관한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드 골은 자주 알제리아 민족 운동 내부가 분렬될 가능성을 기화로 삼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이 분렬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그는 알제리아 인민을 전 세계 진보적 력량 우선 모로코 및 튜니샤의 형제적 인민들로부터 고립시켜 보려고 하고 있다. 드 골의 첫 행동의 하나는 《사하라 석유법》을 조작한 것이다.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자기 수단만으로써는 알제리아 인민의 항쟁을 정복할 수 없으며 사하라의 석유 자원을 채굴할 수 없는 것만큼 드 골은 대서양 동맹,우선 미 제국주의의 막대한 재정적, 정치적 및 군사적 원조를 받고 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석유 트레스트인 미국 《스탄다드 오일 콤파니》에 사하라의 문을 열어 주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알제리아에서의 식민지 전쟁을 《북아프리카에로의 공산주의의 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묘사하려고 한다.

이렇듯 드 골이 알제리아 인민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평화는 불란서 독점 자본가들의 평화이며 《대서양식》 평화인바 이 평화는 알제리아로 하여금 석유 트레스트들의 가혹한 착취를 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할 것이다.

알제리아의 독립과 불란서 인민의 리익을 인정하는 데 기초하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드 골을 지지하는 정치적 력량인 것이 아니라 이에 대립되는 민주 력량인 것이다. 이 민주 력량은 심각한 패배를 당한 후 불란서 공산당과 선진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영향하에서 재집결되고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 ❊

알제리아의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은 1954년 11월에 시작되였는바 이 투쟁은 당들의 련합이나 어느 한 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맹 및 투쟁 혁명 위원회에 망라된 애국자 그루빠에 의해서 시작되였다. 이 위원회의 호소는 더는 식민지적 압박을 참을 수 없는 인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동맹 및 투쟁 혁명 위원회는 그 후 곧 두 개의 조직으로 즉 민족 해방 전선과 민족 해방군으로 개편되였다. 이와 같이 민족 해방 전선은 여러 당들의 련합이 아니며 그것은 투쟁에서 단련된 운동이며 해체된 민족주의적 정당과 단체들의 거의 전체 지도 일'군들과 당원, 맹원들을 망라한 운동이다. 민족 해방 전선은 소부르죠아적 인테리겐챠, 수공업자들, 로동자들과 농민들을 단합시켰다. 가장 압박 받는 사회층들이 이 전선의 지주(支柱)로 되였다. 민족 해방군 전사들은 주로 빈농민들 속에서 모집되였다.

민족 해방 전선은, 싸우려고 결심한 매개 알

제리아인들은 과거의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민족 해방 전선에 단합되라는 정확한 구호를 최초부터 내걸었다. 1956년 5월에 민족 해방 전선 대회가 열리였는데 이 대회는 운동의 정치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알제리아의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며 민주주의적 및 사회적 공화국을 수립하며 철저한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알제리아에 거주하는 구라파인들에게 알제리아 공민과 동등한 공민권을 부여하며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를 불란서와 설정하며 북아프리카적 통일의 범위 내에서 튜니샤 및 모로코와의 긴밀한 련계를 맺으며 반둥 원칙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운동은 민족 해방 전선의 지도하에 장성하였으며 새로운 력량들로써 보충되였다. 운동에는 상인들, 부르죠아지, 일부 토호들과 지어는 이전 대의원들, 지방 자치회 평의원들, 불란서 군대의 병사 및 장교 등 식민주의자들에게 복무한 일부 사람들도 단합되였다. 이렇듯 출신이나 계급적 소속 여하에 관계없이 거의 전체 알제리아 인민이 투쟁에 망라되였다. 전투를 통하여 청소하고 영광스러운 민족 해방군이 강화되였다. 인민들로부터 백방의 지지를 받는 이 민족 해방군은 자기의 대렬을 편성하였고 지휘부를 꾸리였으며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간부들을 육성하였으며, 주로 적에게서 빼앗은 현대 무기로 자기를 무장하였다. 민족 해방군 창건시에는 그 대렬 내에 3,000명의 전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13만명의 단련된 병사들이 있다. 주로 유격 전술을 견지하고 있는 민족 해방군은 작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항상 적을 전률케 하면서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적의 강력한 무장에도 불구하고 4년 간의 전쟁에서 우리 인민은 정치적, 군사적 및 외교적 분야에서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 승리들 중 하나는 작년 9월에 알제리아 공화국 림시 정부를 수립한 것인데 이 정부는 금후 알제리아 인민의 유일하게 진정한 대표자로 될 것이다. 15개국이 이 정부를 승인하였다. 알제리아 문제는 세 번이나 유엔 회의에 상정되였다. 알제리아 문제는 불란서의 국내 문제라고 하는 가소로운 규정을 고집한 불란서 정객들의 립장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아 문제는 심의되였고 불란서 식민주의는 규탄을 받았다.

알제리아 인민의 제반 성과는 우선 그의 영웅적 투쟁, 그의 완강성과 막대한 희생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성과는 투쟁이 오직 새로운 국제 정세하에서 진행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도 또한 명백한 바이다. 이 정세의 특징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발생 및 공고화이며 식민지적 압박으로부터의 수 많은 사람들의 해방이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이다. 해방된 인민들은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마찬가지로 싸우는 알제리아 인민을 지지 성원하였다. 아프리카, 아세아 인민들, 특히 아랍 인민들과 우선 애급, 튜니샤 및 모로코는 우리 인민에게 매우 효과적인 정치적 및 물질적 원조를 주었다. 불란서 공산당의 령도를 받는 불란서의 선진적 프로레타리아트를 포함한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로동 운동도 또한 알제리아 인민에게 막대한 지지를 주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알제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토지 혁명, 반제국주의 혁명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　　*

알제리아 공산당은 1954년 11월 봉기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전체 인민을 단합하기 위하여 나섰으며 나라를 식민주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 일으켰다. 인민 대중의 일상적인 요구를 옹호하면서 알제리아 공산당은 알제리아의 해방과 민주주의적 및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알제리아 민주주의 민족 전선에 단합될 것을 민족주의적 단체 및 당들에 제기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활동은 인민 대중 속에 단합의 사상을 보급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민족 운동에 영향을 주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민족 해방 전선 강령의 진보적 성격이 말해 주고 있다.

식민지 제도를 모든 진보의 기본 장애로 본 공산당은 무엇보다도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공산당은 자기 강령에서 다음과 같은 당면한 요구를 선포하였다:

정치적 분야에서. 사하라주도 포함한 알제리아의 독립, 사회적 및 민주주의적 공화국의 수립.

비례 대표제 및 통일적 집단 선거제하의 일반적, 직접적, 비밀 투표에 의한 알제리아 의회 및 기타 주권 기관의 선거.

의사, 언론, 집회, 신앙의 자유 등 모든 자유의 보장 및 존중.

인종적 및 사회적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알제리아인들의 권리와 의무의 평등.

인종론적 성격을 띤 온갖 선언의 금지.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특히 토지의 몰수 그리고 토지의 경작과 관련된 식민주의 회사, 대식민주의자 및 민족 반역자인 알제리아 토호들의 재산의 몰수를 예견하는 철저한 토지 개혁; 농업 로동자, 함메스(자기의 로력으로 생산한 수확의 5분의 1을 받는 소 소작인), 소농 및 중농에 대한 이 토지의 분여. 이 개혁은 우선 이전 민족 해방군 전사였던 빈농민과 해방 투쟁에서 자기의 세대주를 잃은 토지없고 토지 적은 농민 가족들에게 토지를 보장해야 한다.

자연 부원, 은행, 운수 및 사회적 기관들의 점차적 국유화.

알제리아 공업(민족적 독립의 경제적 기초)의 창설을 위한 나라의 현대화 및 기술 장비 계획, 실업의 근절과 대중의 생활 수준 제고 계획의 작성.

문맹을 퇴치하고 아랍어를 급속히 배우며 기술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투쟁.

관리의 민주화와 《알제리아화》, 국가 기구의 개혁.

알제리아 녀성들을 국가 관리에 인입하기 위한 결정적 개혁의 실시.

대외 정책 분야에서. 력사적으로 발생한 알제리아와 불란서 간의 관계 문제 특히 불란서에 40만의 알제리아인이 살고 있고 알제리아에 100만의 구라파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알제리아, 불란서 량 공화국 간에는 자유, 평등, 호상 존중의 원칙에 립각한 친목과 협조 정책이 실시되여야 한다.

알제리아 공산당은 튜니샤, 알제리아, 모로코를,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력사적 행정에서 형성된 이 세 민족들의 각이한 특성들을 존중히 하는 조건하에서 북아프리카 련방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한다.

알제리아 공산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기 민족의 경제적 앙양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체 아랍 국가들이 통일되고 협조할 것을 주장한다.

자기의 민족적 독립을 유지하며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평화 옹호 투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알제리아는 전체 사회주의 나라들과 친선 단결 관계를 설정하는 데 관심을 돌리고 있다.

알제리아 공산당은 반둥 원칙을 찬동하며 그것이 알제리아와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의 기초로 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제국주의는 전체 인민들의 주되는 원쑤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각성을 높여 제국주의의 음모를 폭로 분쇄해야 하며 우선 미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을 끌어 넣으려고 하는 그 모든 조약과 군사 쁠럭을 파기해야 한다.

알제리아 공산당은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우리 인민 앞에 나서 있는 모든 문제를 오직 사회주의만이 근본적으로,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감추지 않는다. 이의 명백한 실증으로 되는 것은 쏘련, 인민 중국 및 기타 사회주의 제 국가의 고무적이며 창조적인 사업과 거대한 성과이다. 알제리아가 사회주의 국가로 될 날이 올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알제리아 공산당은 우리 나라의 민족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빈농, 진보적 인테리겐챠 및 인민의 대다수와 단합한 로동 계급의 지도하에 평화적으로 사회주의적 알제리아를 건설하려고 한다. 물론 현 시기 알제리아의 기본 문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적 압박

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하는 것인만큼 모든 애국적 력량을 이 목적 달성에 동원해야 한다.

1954년 11월 무장 진출이 시작되였을 때 우리 당은 투쟁이 대중적 성격을 띠는 모든 곳에서 이 투쟁에 가담할 것을 우리의 농촌 열성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많은 공산당원들이 빨찌산 대렬에 들어 갔다. 도시들에서 당은 대중을 무장 투쟁 원호에로 동원하면서 거대한 정치 해설 깜빠니야를 시작하였다. 1955년 6월과 1956년 6월 사이에 알제리아 공산당은 도시와 농촌에 《해방 투사》라는 군사 단체를 조직하였다. 그 후 이 단체는 민족 해방 전선과의 합의하에 민족 해방군에 편입되였다. 많은 공산당원들, 알제리아인들과 구라파인들은 민족 해방군 대렬에 가담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전사하였는바 그 중에는 중앙 위원회 위원들도 있다.

공산당이 민족 해방 전선에 가입할 데 대한 자기 결정을 발표하였을 때 민족 해방 전선 대표자들은 우리가 자기 조직을 해체하며 자기 당원들에게 개별적 절차로 민족 해방 전선에 가입하도록 호소할 것을 요구하여 나섰다. 우리는 이 제의를 전 당적으로는 접수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해방 투사》란 단체에 대하여만 이를 실현하였다. 당을 해체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모순된다. 알제리아 공산당은 혁명적 리론으로 무장되고 로동자와 빈농의 당면한 리익과 원대한 리익을 표현하는 조직된 당으로서만 해방 투쟁에 극히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 당은 자기의 정치적 및 조직적 자치를 보존하는 조건하에서 민족 해방 전선 대렬에 가입할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 조건은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당은 투쟁에 참가하여 민족 해방 전선의 반제국주의적 행동을 결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작년 9월 19일 알제리아 공화국 림시 정부가 수립되였을 때 우리 당은 그를 결정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힘있게 부언하였다: 《알제리아 공화국 림시 정부는 알제리아의 독립의 기초 우에서 불란서와의 정전 담판을 진행할 수 있는 알제리아의 유일하게 권위있는 대표이다》.

민족 해방 전선과 그 태내에서 탄생한 림시 정부에 우리 당이 주고 있는 결정적인 지지는 우리 당이 알제리아 인민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여기서 당은 건설적인 정신으로 행동하였으며 민족 해방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언제나 인민의 동맹 및 투쟁을 강화하려는 지향을 지침으로 삼았다.

❊　　❊

알제리아 정부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불란서 정부와 회담하려는 자기의 희망을 항상 성명하고 있다. 그러나 드 골과 그의 정부는 우리의 성명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더우기 그들은 《정치적 해결은 없을 것이다》라고 언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의 계속과 있을 수 있는 전쟁의 확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다.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한결같이 열렬히 념원하고 있는 알제리아 인민을 두고 말한다면 그는 불란서 정객들이 평등의 기초 우에서 담판을 진행할 데 대하여 승인하고 동의할 때까지 투쟁을 과감히 계속할 결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되여 있다. 4년 간의 전쟁과 특히 민족 해방군의 거대한 적극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최근 수개월 간의 전쟁은 알제리아 인민에 대한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지금 불란서의 지배층은 가까운 장래에 알제리아에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알제리아 인민은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바, 그들은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신심은 알제리아 인민에게 형제적 아랍 인민들, 아프리카 및 아세아 인민들, 사회주의 제 국가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이 주고 있는 련대성이 장성할 것이며 알제리아가 식민지적 억압을 내던지고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으로써 더욱 굳어지고 있다.

미국의 《민족적 재난》

지난 4월 8일 워싱톤에서 미국 에이, 에프, 엘—씨, 아이, 오 합동 로조 집행 위원회가 소집한 실업자 회의가 진행되였다. 이 회의에는 미국의 15개 대공업 지구를 대표하는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은 수백만 실업자들의 요구와 불만, 그리고 항의와 위임을 가지고 회의에 참가하였다.

이 회의는 미국에서 1929—1932년 세계 경제 공황 이후 최대의 실업자 회의였는바 이것은 우연하게 소집된 것이 아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실업자가 부단히 장성되여 국내의 사회 경제적 모순이 한층 첨예화되여 가고 있다.

미국에는 1953년부터 1954년 사이의 경제 공황 이전에 실업자의 수가 약 150만 명이였다. 이 공황 이후 실업자의 수는 250만 명으로부터 300만 명으로 증가되였으며 오늘은 500만 명 이상으로 증가되였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실업자의 수가 계통적으로 부단히 증대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지금 미국의 경제가 일정하게 앙양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게 로동자들의 취업률이 제고되지 못하고 계속 저하되는 그것이다.

1957년 8월 생산이 급격히 하강되기 이전에 미국 가공 공업의 재직 로동자는 1,695만 명이였다. 생산이 최저로 하강되였을 때인 1958년 4월에 가공 공업의 재적 로동자 수는 1957년 8월에 비하여 185만 명이 감소되였으며 생산 지수가 143으로 다시 장성된 시기인 금년 1월에 가공 공업의 재적 로동자 수는 동기에 비하여 여전히 133만 명이 감소되였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경제 공황 시기에 생산 설비들이 갱신되며 생산의 자동화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로 인하여 생산에서 로동자들이 계속 구축되는 데로부터 산생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 미국에서 실업군은 더욱 급격히 장성되리라는 것을 미국의 공식 자료들도 확증하여 주고 있다.

미국 《상업 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1958년에는 로동 생산 능률이 1957년보다 4% 제고되였고 1958년 4.4분기에는 1957년 동기보다 7% 제고되였다. 미국 통계국장 크레커의 계산에 의하면 1959년에 로동 생산 능률이 3% 제고된다면 가공 공업에서만도 실업자가 50만 명이 증가될 것이며 모든 경제 분야에서는 실업자가 200만 명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 외에 해마다 로동 년령에 달하는 인구의 자연 증가는 70만 내지 80만 명에 달하는데 이것도 기본상 실업 후비군으로 되고 있다.

미국의 독점 자본가들은 실업자군의 부단한 장성을 리용하여 로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등으로 그들의 생활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바 지난 1년 간 미국 가공 공업 부문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9% 저하되였고 전체 로동 계급의 실질 임금은 3% 이상 저하되였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의 실업 문제는 더는 해결할 수 없는 고질로 되였으며 한층 첨예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미국 로동 계급 속에서 이미 1957년 경제 공황 때부터 실업 문제를 해결할 데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였었다. 그런데 생산이 장성되는 오늘에 와서도 의연히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뿐더러 더욱 악화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로동자들 속에서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으며 실업자들의 투쟁은 부단히 강화되고 있다.

미국 로조 활동가들은 로동자들로부터의 고립을 우려하면서 부득이 워싱톤에서 실업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였던 것이다.

물론 이 회의는 진보적 인사들에 의하여 소집된 것은 아니다. 회의에는 실업자 대표 이외에 로조 활동가들, 정치 활동가들과 정부 관리, 적지 않은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저명한 로조 활동가들, 로동 장관 미첼, 상원 의원 더글라스 및 기타 인사들이 연설하였다. 이 연설자들은 자본주의 제도를 옹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독설을 함부로 퍼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사상과는 거리가 먼 이 사람들도 미국에서의 만성적인 대중적 실업이 문'자 그대로 민족적 재난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그들의 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실업 문제를 살피기로 하자.

회의 참가자들은 미국에서 실업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나서며 그것은 인간 비극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을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에이, 에프, 엘—씨, 아이, 오 합동 로조 위원장 죠지 미니는 자기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본 회의의 목적은 미국의 첫째가는 국내 문제 즉 대중적 실업에 나라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실업이라는 불행이 이미 전국의 도시와 농촌에서 미국인들의 가정을 뒤덮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는 것을 기업가, 정객, 경제학자들보다 더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실업이 산생하고 있는 개인적 고통과 또 그것이 초래하는 인간 자원의 랑비 이외에 대중적 실업은 일'감을 잃고 있는 로동자들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자기 시장을 잃어 버리고 있는 공업과 농업에 대하여서도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비록 정부 보고에서는 실업자 수가 3월에 38만 7천 명 감소되여 지금 436만 2천 명을 헤아리고 있다고 지적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여전히 주요한 국내 문제로 남아 있다. 취업률에 관한 보고와 그에 동반되는 정부 요인들의 락관적 언명은 잘 고안된 선전이다.… 최근 4개월 동안에 공업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데도 실업은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 공업 생산은 공황 이전 수준의 95%에 달하였는데 공업에서의 취업률은 40%에 불과하다》.

미니는 계속하여 정부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플레에 대하여 떠들고 있는 아이젠하워의 정책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귀결된다. 균형 예산과 자금 절약 계획은 취업률 제고에 대한 온갖 현실적 희망을 일소해 버리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은 실업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파국에로 인도할 것이다》.

미국 철도 종업원 로조 위원장 죠지 해리슨은 자기 연설에서 《…가장 오랜 평균 실업 시간의 …상실로 하여 금년은 우리 부문 로동자들이 체험한 가장 암담한 해의 하나로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것으로 다 끝나지는 않았으며 이것이 제일 불길한 것은 아니다.

경제 하강이 시작되기 이전인 1956년 말에 우리에게는 21만 1천 명의 숙련 로동자가 그 해의 전 기간을 통하여 전혀 일하지 못하였다. 그들 중의 5만 명은 40세를 넘은 남녀 로동자들인데 그들은 심지어 호경기 때에도 다른 경제 분야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구할 희망을 거의 완전히 상실하였다》라고 미국 내에서 실업 문제의 첨예성을 지적하였다.

자동차 및 항공기 공업 로동자 합동 로조 위원장 월터 루이터는 자기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선 실업자들은 공식 자료들이 보여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바 그것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반취업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수십만의 기타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있다. 55세 나는 한 로동자는 그의 이웃에 사는 28세의 청년이 날마다 헛되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취직을 단념하고 있다. 그는 취직을 단념한 순간부터 실업자 명단에서 삭제되여 더는 실업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엄혹한 생활의 경제적 사실들을 보자, 미국에는 267개의 위험 지구가 있는바 그 곳 실업자들은 부분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정부가 셈에 넣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도 전국 로동력의 6%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10년 간의 로동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각종 공업 부문의 로동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본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20년 간의 생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로동자들이 일부 공장들에서 가두에 구축되였다》.

이 회의에서 연설한 모든 사람들은 자본주의 제도에 고유한 현상 즉 한 줌도 못 되는 백만 장자들을 부유하게 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로동 계급의 처지와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회의에서 인용된 많은 자료들은 《기술과 과학의 진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피땀을 짜내는 방법에서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한 레닌의 명제를 확증하여 주고 있다.

자동차 및 항공기 공업 로동자 합동 로조 위원장 월터 루이터는 기술적 진보로 인하여 실업자의 수가 부단히 증대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얼마 전에 련방 준비 체계 관리자 리사회는 생산이 또다시 1957년의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아직 500만 명의 실업자가 있다… 미국의 공업 생산에서 10년 동안에 1,190만 명의 로동자들이 그 이전 시기의 1,270만 명의 로동자들이 생산한 것보다 35%나 더 많은 생산물을 내고 있다. 기술은 계속 급속히 전진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기술과 충돌하고 있다…

자동화된 콤베야에서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자동화된 콤베야에서 구매자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나를 근심케 한다. 구매자는 낡은 방법으로써만 만들 수 있으니 그 방법이란 구매자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득할 수 있는 구매력을 보장하는 데 있다.

…자동화와 새로운 기술은 다만 한 가지 방법으로 즉 우리가 그것들을 한 줌도 못 되는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수요에 응하게 하는 방법으로써만 장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월터 루이터는 실업으로 인한 생산 예비의 랑비와 손실을 인정하면서 《최근 5년 간에 대중적 실업과 우리 생산 능력의 불완전한 리용으로 말미암아 미국 인민은 나라의 총 생산물 중에서 1,520억 딸라 즉 한 가정당 약 3,000딸라를 영원히 상실하였다. 그리고 만약 1959년부터 1964년 간의 5년 동안에 우리의 발전 템포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5%보다 낮게 된다면 우리는 이 5년 간이 끝날 때에 4천억 딸라를 하늘로 날려 보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유 식량의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십억 딸라의 일부를 분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유 식량을 90억 딸라분이나 가지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 여유 식량의 보관에 13억 딸라가 든다는 것으로 하여 론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 곳은 즉 실업자들의 배안이다》라고 말하였다.

회의에서 연설한 사람들은 자본가들이 더욱 더 광범한 규모에서 로동 강도를 높이는 데 공황을 리용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수백만의 사람들을 실업에로 내몰았고 그것을 치부의 추가적 원천으로, 로동 운동을 반대하는 수단의 하나로 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민주당 출신의 상원 의원 폴 더글라스는 자기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대공업 기업소와 금융 기관 및 정부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만사가 잘 되여 간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리윤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생산은 다시금 1957년 8월에 있은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되였다>. <주식 취인소에서는 경기 상승을 볼 수 있으며 주권 시세는 올라 가고 있다. 백만 장자의 수는 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백악관과 각 부 지도자들, 련방 준비 체계, 공화당 지도자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우리 당 내의 극단한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경제 하강을 방지하거나 실업자를 원조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케 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기업가들에게는 실업자들이 많은 것이 유리한데 그렇게 되면 로임과 가격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설교까지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의 일부 금융 마술사들은 실업자들을 물가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빈궁이 존재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려하지 않으며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눈을 감고 있으며 귀를 틀어 막고 있다…

미국 철도 종업원 로조 위원장 죠지 해리슨도 자기 연설에서 철도 부문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가 실업자를 증대시키는 반면에 자본가의 리윤을 증대시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1958년 여름에 철도 사업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1959년 첫 3개월 간의 화물 수송량은 1958년에 있어서보다 6% 높았다. 그러나 철도에서의 취업률은 계속 축감되였다. 철도 종업원 수는 1958년의 낮은 수준에 비하여서도 약 7%나 감소되였다. 일은 잘 되여 나간다 하여도 취업률은 여전히 축감되였다.

이러한 변천의 결과에 철도 수입이 어떻게 되였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1958년 9월부터 시작하여 철도의 리윤은 급속히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1958년의 마지막 넉달 동안에 철도의 수입은 1년 간에 10억 딸라의 순 리익을 낼만한 수준이였다. 이것은 전후의 다른 여러 해보다 높은 것이며 그 시기의 가장 높던 수입과 거의 같은 것이다. 1957년의 가을 몇 달보다는 순 리익이 20%나 높은 것이였다.

철도에서의 리윤은 수송량이 다시금 증대되였을 때에까지도 철도에서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하여 유지되였으며 증대되였다…

가장 암담한 것은 앞으로 닥쳐 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회계 년도는 력사상 가장 어려운 해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새로운 보다 전률할 수'자가 나타 나고 있다… 수송량은 증가하였다. 철도의 수입은 많았으며 리윤은 전후 최고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에서는 실업 역시 늘어 가고 있다…

철도에서의 정형은 이렇다… 철도 종업원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이 회의에서 미국 로동 장관 미첼도 발언

하였는바 그는 미국에서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 ＊

미국 실업자 회의는 미국의 경제 위기와 실업 문제의 첨예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 한 로조 지도자들과 정치 활동가들의 연설은 그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할 따름이다.

그들의 연설에서 인용된 사실들은 자본주의가 실업과 빈궁 문제를 더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립증하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에 고유한 병'집들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공황과 실업, 생산의 무정부성, 인간 로동력의 불합리한 지출과 랑비가 불가피하게 존속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주고 있다.

이 연설자들이 인용한 자료들은 그들이 의식했건 의식하지 못했건 자본주의 옹호자들에 의하여 꾸며진 《인민적 자본주의》, 《전반적 안녕》, 《번영》에 관한 허구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또한 인용된 자료들은 미국의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도 소리 높이 떠들어 대고 있는 미국에서의 개성의 자유에 대한 진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미국 평론가들이 떠들고 있는 자유——그것은 실업의 자유, 빈궁의 자유, 기아와 아사의 자유일 뿐이다.

이 회의에서 연설한 사람들(자본주의 옹호자들)은 그 누구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제시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에게 특유한 고질로 말미암아 그러한 방도를 알지도 못하며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없다.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로동자들은 저주로운 실업에서 해방되며 그러한 사회에서만 기술의 발전,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가 로동계급 자체의 복리를 가져 오며 전체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전 산

정정: 4호 15페지 우단 29행 《소비품도 생산도》를 《소비품 생산도》로, 59페지 좌단 5행 《사회 정치》를 《사회 경제》로, 60페지 좌단 6행 《산생》을 《발전》으로 각각 정정한다.

《근 로 자》 제 5호 (루계 162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근 로 자 사 　 인 쇄 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1959년 5월 15일 　 인 쇄•1959년 5월 10일

ㄱ—30293 　 값 50전